

退溪先生 言行錄**

1. 鶴峰 金誠一의 「退溪先生實記」*

□ 선생은 젊어서부터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고, 뛰어난 슬기는 남보다 뛰어났다. 나이 7·8세에 스승을 찾고, 그 숙부 송재 瑀에게 「理」의 뜻을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았더니, 선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일의 옳은 것이 이것입니까.’하니, 소재가 기특하게 여기었다. 나이 16·7세에 이미 학문에 입지하였다. 이 무렵, 溪堂을 지나다가 시를 지었는데;

「이슬 먹은 풀이 매우 아름답게 물가에 둘러있고
작은 못은 맑게 찰랑거리며 모래도 없이 고요쿠나
구름이 일고 새가 나는 것은 원래 서로 상관되나
다만 때때로 제비가 와서 물결 일으킬까 두렵네.」

라고 하였다. 식자들은 이미 취향을 나타냄이 범상하지 않음을 알았다. 평소의 생활은, 날이 밝지 아니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갖추어 모부인에게 문안을 드리되, 얼굴 빛을 즐겁고 공손히 하여 한 번도 뜻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하루 종일 단정히 앉았으나 의복은 반드시 반듯하게 추스렸고, 언어와 동작은 반드시 삼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니 감히 누구도 함부로 굴지 못하였다.

□ 성품은 간결하고 담박하여 명예나 이익이라든가 시끄럽고 화려한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폐하고자 하였으나 부형들이 간곡히 권유하는 바에 따라 마침내 응시하여 급제를 하였

* 丁淳睦 저, 「退溪正傳」(지식산업사, 1992)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다. 몇달 안 되어 한림원[홍문관]에 추천이 되었으나, 그때 김안로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요, 그는 평소에 선생을 꺼리는 터라, 言路(基諫)에 있던 그의 무리가 선생을 ‘역적의 족속’이라 하여 바꾸어 버렸다. [장인 權磻은 곧 權磻의 형이다. 塡은 종종 때 南袞 沈貞을 謀誅했으므로 安老는 이로 말미암아 반대한 것이다.<원주>]

□ 안로가 실각하자 선생은 비로소 經幄에 들어가 조정에서 관직생활을 하였으나, 명성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비록 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하여도 그들과 왕래하는 일이 없었다. 퇴근 후에는 반드시 정좌하여 독서하였으나 직무가 바쁘다고 하여 스스로 게을리하지는 않았다. 「독서당」(東湖)에서 「賜暇」독서할 때, 동료들은 모두 자유분방하게 날마다 음주·詠詩·해학을 일삼았지만, 선생은 홀로 단정히 지내면서 습속에 물들지 않았다. 그러나 동료들은 모두 그의 지조를 높이 공경하며 자기들과 행동이 다르다고하여 싫어하지 않았다.

□ 종종 말년에 두 윤씨 [大尹·(윤임), 小尹·(윤원로 형제)] 가 서로 다투자, 이로부터 선생은 벼슬살이를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계묘년(1543)에 병이라 칭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갑진년(1544)에 부름을 받아 조정에 돌아왔으나 여러 번 벼슬하지 않겠다는 것을 청하였다. 을사사화(1545)가 일어나자, 權勿·丁爌[1512~1560. 호는 遊軒, 조광조의 문인] 등과 함께 같은 날 삭직되었다. 李芑의 조카 元祿의 구원으로 풀리었다. 뒤에 이기는 원록이 자기를 속인다고 노하여 죄 주고자 하였으나 그의 형 元祥이 이기의 집에 가서 애걸하였다. 이기는 이를 불허하면서, “이 아무개의 죄가 역적의 무리와 같거늘 원록이 나를 속였으니 어찌 죄가 없으리오.” 하고 마침내 귀양을 보냈다. 李芑는 분을 이에 그치지 않고 지평 李無彊을 시켜 탄핵하게 하였으나 대간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어서 마침내 가라앉았다. 이로부터 힘써 외직으로 나가고자하여 단양과 풍기의 두 고을의 원으로 나갔다.

□ 풍기에는 「백운동서원」이 있었는데, 전의 군수 주세붕이 창건한 것이다. 서원의 일이 초창기라서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선생이 부임하자 학문을 일으킬 것을 유의하여 모든 규모를 법도에 맞게 하였으니 주자의 「백록동서원」의 故事를 따른 것이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명종의 특명으로 賜額하고 책을 내리니, 드디어 남방 학문의 전당[絃誦之地]이 되었다. 그가 고을살이 할 때는 청렴결백하여 한점 허물도 없었는데,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다만 몇 개의 고리짝이 있을 뿐이었다. 이 때 계당에 서당을 짓고 「한서」(寒栖庵)라고 하였다. 문을 닫고 글을 읽되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고 공부하기를 거두지 아니하였다.

□ 임자년(1552)에 대사성이 되었는데 교육행정이 문란하고 사회교화가 퇴폐한 것을 보고는, 선비들의 습속을 새롭게 진작시키고자 四學에 글을 내려[諭四學諸生文] 성현의 「爲己之學」에 힘쓰도록 하였다.

□ 그 때 이미 습속은 무너져서, 손을 쓸 여지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병이라 일컫고 그 직을 면하였다. 이로부터 비록 벼슬이 내려져도 취임하지 않아 오랫동안 명예직(散秩)에만 있었다. 을묘년(1555)에 병으로 사퇴하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3월에 다시 부름을 받고 또 음식을 하사받았으나 「陳情疏」를 올리고 나아가지 않았다. 병진년(1556)에 副提學[홍문관의 정3품 당상관]을 배하고 연달아 불리었으나 모두 병이라 사퇴하였다. 무오년(1558) 가을에 「벼슬에 나갈 수 없는 5가지 이유」(五不宣)를 올렸더니, 명종이 노하여 御札[임금이 손수 쓴 편지]로써 심히 꾸짖었다. 부득이 일어나 도성에 들어가니 공조참판으로 벼슬을 올렸다.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기미년(1559) 봄에는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직을 호소하는 글을 더욱 자주하였고, 을축년(1565)에 가서야 비로소 遞職이 되었다.

□ 李樾[명종 때의 權臣]이 일을 꾸며 사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 선

생을 淸議[士林公論]의 우두머리라 하여 죄를 주려고 하였으나 흉모를 이루지 못한 채 실각하고 말았다.

□ 명종 말년에는 비로소 權奸들이 물러가고 善類들이 등용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번 불러 올리는 글을 내려, 공조판서·大提學[홍문관·예문관의 정2품 벼슬 主文 또는 文衡이라고 하여 일국의 학술과 문예를 주도함] 등으로 재촉하였다. 그러는 중에, <물러감을 구하지만, 나아감을 얻고, 작은 벼슬은 사양하나 큰 벼슬은 받는다.> [求退得進 辭小受大] 라는 말이 있자, 칭병하고 끝내 벼슬을 받지 않고 돌아왔다. 그 때 여러 음해는 비록 풀어졌으나 왕의 마음은 안정되지 아니하였다. 여러 어진 이가 나아갔으나 그들의 하는 일들이 인심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선생은 이것을 근심하여, “기묘 명현들은 실로 우연찮은 것인데, 제도개혁을 급진적으로하여 화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하물며 지금은 인물이 아득하니 망령되게 함부로 일을 시작하다가 일을 그르치지 않기란 드물 것이다.”하였다.

□ 정묘년(1567)에 製述官[典禮文을 짓는 임시 벼슬]으로 임명되어 갔으나 마침 명종의 상사를 만나, 「五禮儀」의 <喪制>가 맞지 않는 것이 많아서 주자의 「君臣服議」를 참작하여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예관들이 따르지 않았다. 예조판서에 제수되었으나 받지 않고 병을 핑계로 그 날로 돌아왔다. 그 때 임금의 능의 역사(山陵)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모두 선생이 퇴거한 것을 의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 때의 재상들은 선생을 「산새」(山禽)에 비유하기도 하였고, 선비들은 간혹 <나는 그의 학문을 의심한다.>라고도 하였다. 문인 기대승이 글을 보내 이에 대하여 질문하니, 선생은 답서하기를, 수 천마디의 말로 반론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因山이 참담하여, 廠衛[임금의 상사에 쓰이는 모든 기구]가 당도하니 백관이 달려와서 모두 다 애통한 정을 펴건마는, 병든 신하는 할 수 없이 옛 절에 머물고 있는데, 마침 보내준 편지에 古義로써 꾸짖으니

부끄러워 죽은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의 처지가 어려웠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큰 어리석음이요, 중한 병이며, 빈 이름이요, 잘못 주어진 은혜이다. 큰 어리석음으로써 빈 이름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망령된 행동이 될 것이고, 중한 병으로써 잘못 주어진 은혜를 받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 내가 벼슬을 즐기지 않고 항상 물러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다른 뜻이 있어서이겠는가. 옛날의 군자는 진퇴의 분수를 밝히 알아서 한 가지 일도 놓치거나 지나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벼슬살이의 윤리(官守)를 잃게 되면 반드시 몸을 받들어 급히 떠나갔으니, 그도 임금을 사랑하는 정으로야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할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어이 떠나는 것은 致身[임금을 위하여 몸을 바침]할 곳이지만 의로움을 행할 수가 없고, 반드시 물러간 다음에야 그 의로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록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할 정이 있어도 부득불 의에 굽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공을 위하여 산능의 직분을 다 끝내어 「정」과 「의」를 함께 다하는 것이 진실로 신하로서의 지극한 소원이기는 하다. 그러나 나는 산능을 마치기 전에 「정」을 굽혀, 「의」를 따랐으니 신하로서 불행한 소처이나 부득불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임금과 아버지는 일체이므로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로 오직 임금과 아버지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간은 천륜에 속하여 받들에 있어서는 「無方」[경계가 없는 것]이고, 군신간은 의로 합하여 졌으니 받들에 있어서는 「有方」[경계가 있는 것]인 것이다. <무방>이라는 것은 「은」이 항상 「의」를 가리는 것이니 버릴 수 없는 것이고, <유방>이라는 것은 의가 때로는 「은」을 빼앗으므로 부득불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살았을 때 봉양하는 것이나, 죽었을 때 장사지내는 것도 이 법도의 하나이다.

지난 번에 내가 병을 근심하지 않고 오랫동안 벼슬 자리에 있었다면 거기서 진실로 물러나야 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선대왕의 넓고 큰 덕을 만나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허락 받은 지 16·7년 동안 조용히 살아갈 소원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선대왕이 멀리 떨어진 산

야의 신하로 두려는 것이지, 꼭 대궐 아래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나는 비록 「정」을 따르고 「의」를 잊었으며, 그 몸의 거취를 스스로 잃었으나, 죽고 사는 갈림길에서 스스로 경솔하게 행동할 수 없으니 어찌 떠나지 않겠는가. 재공들에게 있어서는 벼슬에 나아가는 것이 「의」이고, 나의 경우에는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의」이니, 그대의 의견에는 이 양자 가운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할 지는 알 수 없다. 가르침 있기를 바란다(…)」이 글 하나를 보더라도 그의 평생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 지금의 임금[선조]은 처음부터 부르심이 끊이지 않더니, 무진년(1568)에 선생은 명에 응하였다. 선생은 오랫동안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선비들은 모두 그의 진퇴로써 평안과 혼란을 점치고 있었다. 그가 이르매 조야가 서로 경사롭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선생은 이미 오래 머물려는 생각이 없었으니 세상 일에는 뜻이 없는 것 같았다. 대제학·이조판서·우찬성이 제수되어도 모두 사양하였다. 판중추부사로 경연직을 맡고 있으면서 「六條疏」·「聖學十圖」를 올렸으며, 「文昭殿議」를 올려 태조의 동향한 자리를 바르게 하고 昭·穆의 남북의 차례를 정하려 하였으나 당시 재상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 廟堂[의정부]이나 館閣[홍문관과 예문각]은 움직이기만 하면 서로 어긋나서 차츰 틈이 나기 시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정은 불화하고 상하는 틈이 생겼다. 선생은 기사년(1869)에 치사할 것을 상장하였더니 곧 허락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애석히 여겨 만류코자 하였으나 어찌지 못하였다.

□ 여러 명사들이 그를 한강변에서 전송할 때, 눈물을 흐리는 사람마저 있었다. 선생은 비록 거취에 호연하였으나, 실로 「靈芝의 이별」장면[靈芝別席之感 班固의 이별의 시<영지가>에서 나옴]이 생각이 나서 강가의 절에서 이틀 밤을 새우면서, 조정을 떠나는 뜻을 못내 아쉬워 하였다. 우의정 洪暹과 시로써 서로 이별할 때, 선생은 다른 아무런 말이 없이 다만 10자의 글을 주었다.

아직도 종남산[여기서는 목멱산 곧 서울]에 미련이 남아 있는지
 위수[여기서는 한강]가를 떠나가며 머리 돌리네

□ 그가 물러날 때, 임금이 인견하고 하고자 하는 말을 물었는데, 그 때 아뢰는 말은 어느 것이나 국가 대계가 아닌 것이 없어서 임금은 감동하였다. 물러나서도 잇따라 글을 올려 치사할 것을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다가 그의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의원을 보내 진맥시키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임금이 듣고 못내 슬퍼하여 3일 동안 조회를 거두고 영의정을 중직하고 장사에는 한 등급을 加資하였다.

□ 선생은 병이 위중하자, 유언하기를 “비석을 세우지 말고 다만 조그마한 돌을 세워 거기에 題하되,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 하라”하였다. 또 유계로 禮葬[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을 사양하라고 하였다. 모두 그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 때 사람들은 선생을 의지하기를 泰山·喬嶽 같이 하였으므로, 그의 부음이 전해지자,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서로 붙들고 곡하였다. 가까운 고을 사람은 비록 村翁野夫라도 모두 素食하였고, 장례 때는 멀고 가까운 데서 온 사람이 수 백명이었다. 우리 나라는 비록 문헌의 나라라고 일컫지마는 도학이 밝지 못하고 인심이 어두워, 고려로부터 이조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이름난 이가 몇이 없었다. 선생은 기묘사화 이후, 위로는 스승의 전함이 없고, 옆으로는 유익한 벗이 없이 초연히 홀로 성현의 글을 읽고 깨쳤다. 중년 이후로는 강학에 더욱 힘써서 도를 전할 책임을 더욱 무겁게 생각하였으며 학문의 연찬은 한결같이 주자를 표준으로 하였다. 일찍이 주자서를 얻어보고서는 그 강론과 연구에 여러 해를 쌓았고 곱어보아 글 읽고, 우러러보아 생각하기를 침식을 잃을 정도였으니 이에 환하게 깨닫고 활달하게 실천하게 되었으니, 그가 평생의 힘을 얻은 것이 대개 이 책에 있었다.

□ 그의 학문의 대강을 열거하면; 主敬의 공부는 처음과 끝을 꿰뚫었고 동과 정을 겸했으니 그윽히 혼자 있을 때나 자유스러울 때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였다. 공리의 공부는 체와 용을 하나로 하였고 본과 말을 두루 통해서 참된 앎과 착실한 언음의 경지까지 이루었다. 일상 생활에서는 언제나 幾微[미묘한 움직임]와 毫忽[조그만한 틈, 또는 차이]에서도 자세히 살피려고 하였으며, 평이하고 명백한 것으로 도를 삼았으나 남이 모르는 미묘함이 있었고, 겸허와 退讓으로써 덕을 삼았으나, 남이 넘을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실로 규모가 심대하였다. 차라리 성인을 배우다가 이루지 못할지언정 한가지 착함으로써 이름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 날로 닦음에는 용감하였으니 차라리 자신의 힘을 다하다가 미치지 못할지언정 늙고 병들었다고 하여 한 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순순히 차례를 지켜 속히 이루려고 서두르는 폐단이 없었고 묵묵히 공부를 더하여 은연 중에 날로 밝아지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여러 성인의 책을 널리 연구하되, 언어 문자의 공부를 하지 않았다. 말은 지극히 간략하였으나 아리송하거나 현묘한 것은 아니었다.

□ 도가 이미 높았으나,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같이 하였고 덕이 이미 높았으나 언제나 모자란 듯, 얻은 바가 없는 것처럼 하였다. 마음을 기르기를 날로 더욱 순수하고 단단하였으며, 실천은 날로 돈독하였다. 향상하려는 노력은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끊임이 없었다. 학문을 좋아하고 자신이 맡은 소임을 중히 하고 먼 것을 이루려는 것이 이와 같았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실로는 자신에게는 엄격하였으며 음탕한 음악과 샷된 예는 마음에 붙지 않았고, 사납고 거만하고 간사하고 치우친 기색은 몸에 깃들지 않도록 하였다. 그의 행동이 본보기이고 법식이였다. 그의 고상한 말은 도덕과 인의였다. 거처할 때는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였고 먼 곳을 바라보기를 좋아하였다. 책상을 마주하여 책을 읽거나 향을 피우고 정좌하거나 할 때는 하루종일 공경해 마지 않았으니 일찍이 게으른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법도가 있었으니, 자손을 어루만지기를 은혜로써 하고 의로써 인도하였다. 집안 사람을 거느리는 데는 너그러움으로써 하였으며, 삼가고 조심하라고 타일렀다. 온 집안 안팎이 편하고 즐거우며 엄숙하고 화목해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질서가 잡혔다.

□ 가정이 본래 청렴하고 가난하여 집은 겨우 비바람을 가리었고, 나물 밥에 채소를 씹으니 다른 사람은 견디지 못할 바이나 선생은 안연하게 대하였다. 조상의 제사에도 성효를 다하였고, 형을 섬기는 것은 우애와 공경을 다하였으며, 일가에게는 돈목하게 하였고 외롭고 궁한 사람을 두루 불쌍히 여겼다. 남과 대할 때는 공경하면서 예절이 있었으며 자신에게는 간소하나 도리를 다하였다. 기쁘고 성냄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고 욕하고 꾸짖음을 남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비록 창황하여 급할 때라도 말을 빨리하거나 조급한 기색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의와 이의 구별이 엄하였고 취하고 버림의 분별에 자세하였으며, 의심나는 곳을 따지고 숨은 것을 밝혀서 털끝만한 일이라도 그저 예사로 지나치지 않았다. 진실로 의가 아니면 아무리 녹이 많아도 받지 않았고 길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았다. 착함을 좋아하고 악함을 싫어하는 것은 천성에서 나온 것이고 남의 착한 행실을 보고는 몇 번이라도 가상히 여겨 권장하여 반드시 그것을 성취시키고자 하였고, 남의 과실을 들으면 거듭 탄식하고 애석히 여겨 반드시 개과천선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그에게서 유익함을 얻어 사모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만 자기의 아름답지 못한 소문이 그에게 들리거나 않을까 두려워 하였다. 제자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싫어하거나 게을리한 적이 없었으니, 비록 병으로 앓고 있을 때라도 강론을 그만두지 않았다. 만년에는 도산 기슭에 서당을 지었는데, 방 안은 고요하나 도서는 벽에 가득하였다. 날마다 그 가운데서 거처하면서 마음을 채근하여 이치를 찾고, 은둔함을 좋아하여 그윽히 수양을 하니, 삶을 즐기고 근심을 잊었다. 사람들은 그가 이룩한 경지를 감히 들여다 볼 수는 없었으나, 다만 그 속에

가득 쌓인 것이 發越하여 ‘마음이 넓고 몸이 부하고, 얼굴은 윤택하고 등이 두툼한[心廣體胖 面晬背盎 :「논어」]모습은 스스로 가리우지 못하였음을 볼 뿐이었다. 가슴속은 환히 트이어 ‘가을달 얼음 항아리[秋月氷壺]’같고 기상은 온수하여 ‘순도 높은 금과 같고, 아름다운 옥[精金美玉]’같았으며, ‘웅장하고 무겁기는 산악과 같고’ ‘고요하고 깊기는 못’과 같았다.[莊重如山嶽 靜深如淵泉] 단정하고 자상하며 한가하고 평안하며 독실하고 두터우며 참되고 순수하여 겉과 속이 하나와 같고 사물과 나와의 사이가 없었다.[端詳閑泰篤厚眞純表裏如一物我無間]

□ 바라보면 엄연하여 공경할 만큼 엄숙한 태도이고, 나아가면 따뜻하여 사모할 만큼 덕성스러워서 비록 무지막지한 사람이나 미치광이일지라도 그 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교만한 기운이 저절로 사라졌다.

□ 그가 말년에 조정에 나아감은 장차 무엇인가 이룩될 징조였다. 경연에서 登對한 것과 疏筭로 陳論한 것은 한결같이 성학을 밝히고 왕도를 행하라는 것을 근본으로 하였다. 비록 세상과 더불어 어긋나고 ‘자루와 구멍이 서로 어긋나는’(柄鑿相反) 격이었으나 끝내 자신의 도를 굽히면서 남을 따르지는 아니하였다. 그로 하여금 일할 만한 때를 만나게 하고, 일을 이룰 만한 위치에 있게 하며 좋은 임금을 얻어 도를 행하도록 하였다면, 그의 사업이 어찌 여기에 머물렀을 뿐이었겠는가. 일찍이 말하기를, “벼슬하는 까닭은 도를 행하는 데 있고 녹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하였거니와 벼슬 길에 들어서기 40년, 그리고 네 임금을 거쳤지만 출처와 진퇴가 하나같이 의를 따랐으니 의로움이 아니면 반드시 몸을 받들어 물러가기를 전 후로 일곱 번이었다. 나아가기를 어렵게 하고, 물러나기를 쉽게 한 지조는, 비록 賁과 育[孟賁과 夏育, 옛 중국의 이름난 장사]과 같은 자라도 빼앗지 못할 것이었다. 근세의 사대부들은 독서를 하면 다만 과거합격에서 오는 이익만 알고 성현의 학문이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벼슬을 살면 오직 임금의 사랑이나 국녹의 영화만을 알아서 깨끗이 물러나는 절개를 몰라 그저 ‘엄병덤뎀 · 눈치코치도 없었

다'. 그러나 선생이 한 번 몸을 일으키자 사대부되는 자는 비로소 사람됨의 길이 '저기[泐科擧之利 知龍祿之榮]에 있지 않고 '여기[聖理之學 恬退之節]에 있는 것을 알았으며, 간혹 선생의 명망을 듣고서 감발되어 흥기되는 사람도 있었다. 비록 때를 못 만나고 학문을 시험해 보지는 못했으나 그 공덕과 교화가 사물에 미친 것은 적지 아니 하였다.

□ 선생은 여러 유학자를 집대성하여, 위로는 끊어진 학문의 도통을 잇고, 아래로는 뒤에 오는 후학의 길을 열어[上以繼絕緒 下以開來學] 공자·맹자·정자·주자의 도를 빛나게 이 세상에 다시 밝혔으니, 우리 동방에서 구한다면 기자 이후 이 한 분이 있을 뿐이다.

□ 南冥, 曹植은 “이 사람은 제왕을 도우는 학문을 지녔다.”[斯人有王佐之學]하였고, 高峰 奇大升은 “그의 마음은 가을 달과 찬물과 같다.”[基心如秋月寒水]하였고 문인 趙穆은 “그의 학문은 주자의 적통을 얻었다.”[基學得朱子嫡統]하였으니 세상에서는 이 말들을 ‘잘 알고 하는 말’(知言)이라고 하였다. 지은 책으로는 《理學通錄》·《啓蒙傳疑》 등이 세상에 전해져 있고 학자들은 그를 높여 「퇴계선생」이라 부른다.

2. 文峰 鄭惟一의 「退溪先生言行通述」*

□ 선생은 영특·충명하기가 남보다 뛰어났고,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까웠다. 어릴 때부터 단아하고 장중하기가 어른과 같았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하였으며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문장을 잘 짓는다는 칭찬이 날로 높아갔지만 선생은 그것을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됨의 길이 아니라고 하여 이에 비로소 성현의 학문에서 그것을 찾았다. 비록 이름난 스승을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도는 六經에

* 丁淳睦 저, 「退溪正傳」(지식산업사, 1992)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있고, 그 근본은 원래부터 내몸에 감추어져 있으며, 도에 들어가는 문은 先儒의 논설에서 중천에 뜬 밝은 해처럼 환하게 있다」고 하였다. 이에 분연히 格物致知[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지식을 명확히 함. <大學>]와 誠意正心[참되고 정직한 마음 <대학>]을 하는데 힘을 썼다. 굳은 결심으로 밥먹는 것조차 잊으면서 피나게 노력하던 차에, 너무 지나치게 애를 써서 드디어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다. 오랫동안 요양을 한뒤에는 공부하는 데 더욱 힘이 붙었다. 「敬義夾持」[경과 의를 함께 지님]·「知行並進」[지식과 실천이 함께 나아감.] 「內外一致」[안<나·마음>과, 밖<사물·몸>이 서로 일치함.]·「本末兼舉」[본체(體)와 현상(用)을 함께 다룸]하기를 오래하는 동안, 큰 근본을 환히 알게 되고 마음과 몸이 융통하게 되어 마침내 큰 근본(大本)을 세우기에 이르렀으며 도는 높아지고 덕은 존귀하게 되어서 유고의 도통이 이분에게 있게 되었다.

□ 퇴계의 공부하는 차례를 볼 것 같으면; 선유의 학설을 연구함으로써 성현의 본 뜻을 알고, 성현의 말을 통하여 천지의 이치를 끝까지 찾고자 하였다. 삼가 생각하고 밝게 분별[謹思明辯]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두지를 않았다. 한 가지 일, 한 가지 사물의 미세한 것에서부터 천지만물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가장 깊은데까지 궁리하고, 가장 정밀한 데까지 분석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환하게 꿰뚫고야 말았다. 그러면서도 가까운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하고 생활의 절실한 것들을 표준으로 하였다. 한 번도 아득하거나 구름잡는 듯한 사색과 논의는 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하여 얻은 것은 한갓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돌이켜보아 실천하였던 것들이다. 즉, 나의 「心·性·情」에 나아가 더욱 체험하고 실천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한 치를 지키면 한 치를 얻었고, 한 자를 얻으면 한 자를 지켰다. 고요할 때 성품을 기르는 것은[存養] 날로 치밀하여지고, 움직일 때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은[省察]날로 자세하였다. 따라서 마음 속에 지닌 것은 純固하고 深厚하였으며, 밖으로 나타난 것은 溫裕하고 剛毅하였다. 대체로 가까

운 공은 서두르지 않았고, 조그마한 효과는 계산하지 않았다. 다만 원대한 것을 스스로 기약하면서 차근차근 쌓아올려서 결과를 기다렸다. 따라서 처음은 어려우나 뒤에는 쉬웠다. 「勿忘」·「勿助」·「正誼」·「明導」라는 말들은 학자들을 위하여 언제나 틀림없이 한 말이다. 그의 두드러진 행실은; 몸가짐에 매우 엄격하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 젊을 때 친구와 어울려 공부할 때, 당시 일류의 문사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매우 존경하였다.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있으니 함께 논 선비들이 두렵게 공경했으니 서로 장난치고 놀다가도 선생이 오는 것을 보면 모두 얼굴을 바로하고 자리를 고쳐 앉았다. 뒷날 옥당에 있을 때는 동료들이 곁에서 시시덕거리다가도 선생이 책을 계속하여 보고 있는 것을 몰라치면, 한 마디 말이 없는데도 동료들은 그들의 행동을 매우 부끄러워 하면서 장난을 그쳤다.

□ 일상 생활은; 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한 뒤 서재에 나가 좌우로 가지런히 놓인 책을 읽기도 하고 사색도 하였으며, 神氣가 피곤하게 되면 팔짱을 끼고 고요히 앉았거나 눈을 감고 조금 쉴 뿐, 한 번도 자리에 비스듬히 드러눕지를 앉았다. 그는 천성이 簡默하여 손님을 접대할 때도 하루종일 쓸데없는 이야기나 잡담을 하지 않았다. 남과 더불어 말을 할 때는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였고, 비록 갑작스럽고 급할 때라도 말을 빨리하거나 조급한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의 가슴 속은 시원하고, 그의 멋(韻致)은 드뭇아서, 바라보면 인간사에 등한한 것 같았으나 조리의 치밀함이며 節目[일을 다루는 절차·방법]의 상세함은 저울 눈금만큼의 차이도 없었다. 비록 떠들썩하고 정신이 헛갈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스로 몸을 간수하기를 더욱 엄격히 하고 더욱 단속하였다. 비록 남이 안보는 곳[暗室屋漏]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처신하기를 더욱 공경히 하고 더욱 삼가하였다. 사색을 할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극히 살폈고, 사물에 응할 때는 아무리 세세한 것이라도 반드시 정당한 것을 구하였다. 한 가지 수작이라도 방심하지 않았으며, 한 가지 음식이라도 몸을 함부로 놀린 적이 없었다.

□ 앓을 때는 단정하고 끈게 하여 조금도 기우거나 기대지 않았으며, 걸을 때는 편안하고 천천히 하여 조금도 바빠 서들지 않았다. 손은 함부로 놀리지 않고, 눈은 거만하게 보지 않았다. 번거롭고 시끄러운 일에 시달려도 게으른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남들과 응대하고 수작할 때 복잡하고 답답하다고 하여 짜증을 내는 낯색을 보이지 않았다. 비록 자신이 정승·판서를 지냈지만 옷은 수수하고 음식은 소담하였다. 의를 행할 때는 마치 즐거운 일이나 하듯 달려가서 오직 그것을 얻지 못할까 걱정하였고利害에 대해서는 마치 끓는 물이나 불을 밟듯이 하여 오직 그것을 멀리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였다. 남이 비방을 할 때는 조금도 변명하는 일이 없었고 좋지 못한 일이 자신에게 닥쳐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책 이외에는 달리 좋아하는 것이 없어서 어떠한 바깥 물건이라도 그 마음을 흔들지는 못하였다. 주량은 펍 많았지만, 중년 이후로는 아주 끊어 종신토록 대취하는 일이 없었으니 굳은 결단력을 나타낸 이 대개 이러하였다.

□ 장중하고 성실하며 마음은 비고 밝고 탁 트이었다. 남과의 사이에는 간격을 두지 않았으며 별달리 모를 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그럽되 절제가 있었고, 조화가 있되 휩쓸리지 않았다. 엄하면서도 사납지 않았으며 간결하면서도 거만하지 않았다. 옛 것을 좋아하되 얽매이지 않았고, 세속을 따랐으되 억지로 같아지려고 하지 않았다.

순수하고 온화하기가 마치 「良金美玉」과 같았고 광명하고 정대하기는 마치 「青天白日」과 같았다.

□ 스스로를 보통 사람으로 여겼으며, 스스로 처신하기를 寒士와 같이 하여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만 알고 넉넉하다고 보지는 아니하였다. 이러 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끝없이 전지하여 마침내 큰 소명을 받아 최고의 경지로 나아가게 하였던 것이다.

□ 사람을 대할 때는 귀·천·현·우를 가리지 않고 예를 다하였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 오더라도 반드시 뜰에 내려가 맞이하였으며, 자신이 덕과 지위가 높다고 하여 한 번도 자존하지 않았다. 처음 사람과 사귄 때는 당당하였으나, 오래 갈수록 더욱 미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으로 감복하였고, 마음으로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젊어서부터 함부로 사귀지 않았으니, 서울에 있을 때는 공무 이외는 두문불출하였다. 비록 동지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주 追隨하지는 않았다.

세상에서 항상 명예와 이익을 좇아 분주하게 나도는 사람을 보기를 마치 도둑을 피하듯 하였다.

□ 그가 집에 있을 때는 가사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만 절용하기를 훈계하였고, 하인들에게는 농사에 힘쓰라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가정의 법도는 매우 엄하여 가정의 안팎이 엄숙하고 화목하였다. 하인들에게는 엄하면서도 은혜로웠다. 仲兄인 察訪公이 선생보다 몇 살 위인데도, 선생은 그를 섬기기를 마치 아버지와 같이 하여 늙도록 변하지 않았다. 자제들에게 과실이 있으면 엄하게 견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편한 뜻만 보였으며, 때로는 간략히 경계하고 꾸짖는 말 뿐이었기 때문에 집안 사람은 그가 기뻐하거나 성내는 기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화를 내어 꾸짖는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으니 그것은 모두 그의 천성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 일가 친척에게 돈목하여 궁하고 가여운 일을 두루 보살폈으니 언제나 미치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였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기색을 살펴 뜻에 순종하였고, 사랑과 공경을 다하였지만 스스로 미진하였다고 하여 평생의 한으로 삼았고, 조상의 제사는 후하게 하였다.

□ 그의 종질이 농장을 따라가서 종가가 오랫동안 비고 또 허물어질 지경이 되자 선생은 자산을 내어 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가와 더불어 상의하여 종가 보존의 구원한 계획을 세웠으며 이것이 이루어지자

조카로 하여금 이 곳에 살게 하면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무릇 제사 때는 병이 아니면, 참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재계는 정성을 다하였고 제사는 공경을 다하였다. 조상의 산소가 안동에 있었는데, 때때로 친히 가서 성묘하였다.

□ 벼슬 살이는 이름만 빛낼 행동은 하지 않았고 이치로 보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면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 꺾이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고을을 살 때는 애민을 위주로 하되 성심껏 하였고 忠君憂國의 念은 늙을수록 더욱 독실하였으니, 비록 벼슬에서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내기를 여러 해가 되었으나 그 마음은 조정을 떠난 적이 없었다. 조정의 처사가 이치에 합당하면 그 기쁨을 말로 나타냈고, 조정의 시책이 잘못되면 그 걱정을 얼굴에 나타냈다. 언제나 근본을 배양하고 사림을 扶植할 것을 당장의 급한 일로 여겼다. 무진년에 조정에 들어가서 임금이 뜻인가 하려는 뜻이 있음을 알고는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임임을 알고, <六條疏>를 올리고, <西銘>을 진강하고 다시 《성학십도》를 올렸으며 임금 또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선생의 평소의 학문이 장차 실행될 듯 하더니 얼마 지나 사직하고 돌아왔다.

□ 선생은 본래 벼슬에 뜻이 적었을 뿐 아니라, 時事에 큰 변고가 있을 것을 보고 계묘년부터 벼슬에서 물러날 뜻을 갖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의 선생의 나이는 43세였다. 이로부터 한결같이 물러갈 생각 뿐이었다. 몇 번이나 부름을 받았으나 언제나 조정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였다. 만년에 가서 나라의 부름이 잦으면 잦을수록 더욱 부지런히 글을 올려 사퇴하였다.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초야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설 것을 권하였으나 선생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선생의 출처는 마음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가는 것도 남의 권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것도 남의 만류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의로써 당연한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편한 것을 구할 뿐이었다.

□ 그는 山水를 좋아하였다. 중년에 「퇴계」 위로 이사를 한 것도, 그 골짜기가 그윽하고 숲이 깊으며, 물은 맑고 돌이 깨끗한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만년에 「도산」 아래 「낙수」 위에다 서당을 짓고 책을 갈무리하고, 나무를 심고 못을 파서 그 호를 「陶翁」이라고 고치니 대개 그 곳에서 일생을 마치려는 것이었다. 명종이 이 소식을 듣고 礪城君 宋寅을 시켜, 그 곳을 찾아가 <도산도>를 그려오게 하였다.

□ 그의 물건을 사양하고 받음[辭受]은, 오직 의로써 결단하였다. 그러나 남과 별다른 행동을 하여 주는 물건을 끝내 사절하지는 아니 하였으니, 남이 예로써 선물하면 반드시 받았고 받은 것은 구차한 사람이나 이웃에게 주어 집에 쌓아 둔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집안에서 쓸 것이 떨어져 꾸어서 양도를 잊기도 하였으나 선생은 혹 이런 사정을 모르기도 하였다. 손님이 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정과 정성을 다하였다.

□ 제자를 가르칠 때는 먼저 그의 뜻이 어떠한가를 보았으며, 그 자질에 따라 학문을 가르치되 먼저 立志를 하게 하고 그리하여 爲己 謹篤을 하여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학자가 도에 뜻을 두기를 깊고 간절히 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여 더욱 진보하도록 힘쓰게 하였고, 학문을 하려는 마음이 해이한 것을 보면 걱정하면서 격려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부지런하고 간절하게 이끌어주고 부추겨 주기를 한결 같은 정성으로 하였다. 따라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과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선생은 이미 도가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져서 남에게 기대할 것이 없을 듯 하였지만, 늘 겸허하게 질문하기를 좋아하였다. 선입견이 없었기에 자기 주장을 버리기에 용감하였고, 남의 의견을 따르기를 즐겼다. 남의 한 가지 착한 일을 들으면 마치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였고, 자신에게 조그마한 실수라도 있으면, 아무리 鄙夫의 말이라도 고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학자들이 질문을 할 때면, 아무리 하찮은 질

문이라도 반드시 세밀하게 분석(毫分縷析)하여 거듭거듭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혹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평상시의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여 천천히 결정토록 하였다. 옳고 틀린 것을 의논할 때는 신기를 안정되게 하고서, 그 가장 정당한 것을 구하였으며 내편·내편을 가리지 않고, 또 자신의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가버어 여기거나 자신의 옳은 것으로써 남의 그른 것을 단언하지 않았다.

□ 「物格」과 「無極」의 해석에 있어서 奇明彦(大升) 등과 여러 해를 논변하다가 易箒[높은 선비가 세상을 떠남. 曾子의 고사에서 음]하기 두어 달 전에 명언의 글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침내 다른 사람의 학설을 좇아 정론을 저술하니, 그가 자신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 經·傳·子·史를 보지 않은 책이 없었으나, 젊을 때부터 <사서·오경>에 힘을 썼고 더욱이 <사서>와 <易經>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가끔 그것을 외울 때는 틀림이 없었고 때로는 밤중에 일어나 앉아 《중용》·《대학》·《심경》을 소리높여 외우기도 하였다. 선생은 항상 이르기를, “경서의 해석을 너무 자세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도리어 경서의 본 뜻을 잃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 때문에 뒤에 오는 학자들이 잘못된 학설에 의혹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수학[數理之學 易理之學]도 이치 밖의 글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축년(1553) 이후부터는 아울러 공부하였다. 주자의 《계몽서》는 수학의 조종인데도 모르는 곳이 많다고 하여 여러해 동안 연구하여, 그 원리를 파헤쳤다. 그리하여 《啓蒙傳疑》를 지어 그 뜻을 밝히고 분석하길 남김이 없게 하였고 만년에는 이 책을 제자들의 교재로 삼았다.

□ 선생은 평생토록 주자의 글에 가장 힘을 썼는데, 주자의 학문론 가운데 가장 요긴한 글들이 그의 <書>에 있는데도 학자들이 그것을 너무 등한한 것을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가장 친절하고 요긴

한 것을 뽑아 간략하게 책을 만들고 거기에 주해를 붙였다. [주자서절요] 이로 말미암아 <주자서>를 유익하게 쓸 줄 알게 되었다.

□ 또 주자의 《伊洛淵源錄》은 程子 문인에서 끝났는데, 주자 이하로부터 송의 말년과 원·명 때에 이르기까지 도학의 선비가 많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데도,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없었다. 또 史傳에 기록된 것이 너무 많이 빠지거나 간략하기 때문에 실로 후학에게 불행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선생은 여러 책에 산재한 그들의 언행을 수집하여 《理學通錄》을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주자 이후의 여러 학자들이 학술을 참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선생은 시 짓기를 좋아하여 陶淵明(潛)과 杜子美(甫)의 시를 좋아하였으나 만년에는 주자의 시를 더욱 좋아하였다. 그의 시는 처음에는 매우 맑고 고왔으나 차츰 화려한 것은 깎아버리고 오로지 典實·莊重·簡淡한 데로 돌아가서 하나의 독자적 경지를 이루었다. 그의 문장은 六經을 근본으로 하고 古文을 참고로 하였다. 「華」와 「實」을 모두 겸하고 「文」[문체, 형식, 무늬]과 「質」[내용·바탕]이 알맞게 갖추어 「雄渾」하면서 「典雅」하고 「淸健」하면서 「和平」한 데로 돌아가서 오로지 한결 같이 「바름(正)」으로 나갔다.

□ 글씨 체(筆法)는 처음에 왕희지의 체(晉法)를 따르다가 뒤에는 여러 가지 체를 두루 취하였다. 대개 그의 서체는 「勁健」[굳세고 견실함]하며 「方嚴」[방정하고 엄정한 것]함을 위주로 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글씨를 한 자만 얻어도 마치 백금이냐 얻은 듯 보배로와 하였다. 그의 시문의 아름다움과 서법의 묘함은 온 세상이 모두 「스승의 본(師法)」으로 삼았으니 이른바 <덕이 있어야 표현이 있다>[有德必有言]는 말과 같이 <한 가지에 달통하면 못하는 일이 없는>[通才無不能]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곧 선생의 餘事이니 어찌 선생의 輕重에 관계되겠는가.

처음부터 선생은 깊이 자신을 감추었고 학문으로써 남에게 함부로 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를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혹은 시인이라기도 하고, 혹은 세속 밖의 사람이라기도 하여, 그 학문하는 바의 바름과 그가 참되게 얻은 바에 대하여 몰랐으며, 남모르게 빛나는 그의 참모습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다가 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 해를 더할수록 덕은 높고, 마음가짐이 더욱 고명해지면서 도를 행함이 더욱 친절하여졌고, 스스로 터득한 바가 날로 깊어져서 그를 사모하여 따르는 자들이 날로 많아졌으니 그제서야 사람들은 <동방에 참선비가 났다>[東方眞儒出]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퇴계선생」이라 일컫게 된 것이다.

선생이 시골에 계실 때는 恂恂해서 남과 별다름이 없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도를 사모하였고, 착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의를 두려워 하였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면, 반드시 선생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염려하였으며, 어떤 안건이 생기면 반드시 그에게 물어서 결정하였다. 그를 공경하기는 신명처럼 하였고 신뢰하기는 蓄龜[틀림없는 예언]와 같이 여겼다.

□ 조정에서 벼슬하는 이나 시골에 있는 선비들이 편지로서 질의하는 자가 잇따랐으며 성심으로 공경하고 마음으로 敬服하기를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대개 무슨 의논이 있을 때, 선생의 의견이라면 사람들은 모두 믿고 다른 말이 없었다. 그가 돌아갔다는 소문을 듣자 원근에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고, 비록 선생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날 고기를 먹지 않았다. 성균관 유생과 사방의 선비들이 다투어 와서 조상을 드리니 사람을 감동시킨 크나큰 덕을 보겠다. 선생은 도통이 끊어진 뒤에 나서, 스승에게 배움이 없이 오직 초연하게 혼자서 터득하였다. 순수한 자질[純粹之資]·정밀하게 살핀 견해[精詣之見]·넓고 우뚝한 몸가짐[弘毅之守]·높고 밝은 학문[高明之學]으로써 도는 그 한몸에 쌓이고, 그 말은 백대에 드리웠으니, 그의 공적은 先聖을 빛내고 그의 은택은 후학에게 흘러내렸으니 동방에서 찾는다면 오직 이 한 사람 뿐이다.

3. 惺齋 琴蘭秀의 「陶山書堂營建記事」*

□ 정사년(1557)에 선생께서 도산 남쪽에 서당터를 잡으시고, 느낌을 적은 시 두 수를 지으셨다. 그 뒤 다시 도산 南洞으로 가서 5언고시를 짓고 마침내 서당을 이곳으로 옮기시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중 法蓮에게 그 일을 맡아보라고 청하였는데, 준공이 되기 전 무오년(1558) 7월에 선생께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서울로 가시면서 집의 청사진[屋舍圖子]한 부를 碧梧 李丈[李文樑의 호. 자는 大成. 농암의 아들]에게 주면서 법련에게 시키는 대로 일을 마무리하게 하였다. 또 趙士敬(穆)에게 준 편지에 「도산정사의 터를 잡은 것은 만년에 가장 큰 관심사로서 법련이 스스로 담당하여 내가 돌아가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일을 마쳤으면 하였더니, 이제 들으니 법련이 죽었다니 이런 몹쓸 일이 있을 줄이야……」하였다.

□ 법련이 죽고 난 뒤 淨一이란 중이 계속 일을 맡아 營健하였다. 나 [蘭秀]에게 주신 글에, 「도산의 일은 중이 일을 맡아 기외를 입히는 등 곧 마칠 듯 싶으나 어찌 법련과 같은 굳센 성심으로 담당할 수 있으리요?」하였다.

□ 경신년(1660)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1월에 서당이 준공되었는데, 堂은 모두 3간이었다. 현(巖)은 「巖栖」요, 齋는 「玩樂」인데 합하여 「陶山書堂」이라 扁額하였다. 서당의 서쪽에 精舍 8간을 지었는데, 현은 「觀瀾」이고 재는 「時習」이고, 寮는 「止宿」이니 「隴雲精舍」라 이름하였다. 당을 꼭 정남향방으로 한 까닭은 行禮에 편하고자 함이고, 齋를 꼭 서쪽으로 한 것은 園圃를 마주하여 그윽한 운치를 숭상함이다. 그 밖의 房室·廚藏(곳간)·門戶는 각기 뜻한 바가 있다. 걸어놓은 편액은 모두

* 丁淳睦 저, 「退溪正傳」(지식산업사, 1992)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선생의 필적인데, 「敬齋箴」·「白鹿洞規」·「名堂室記」들을 벽위에 걸었다. 이로부터 「陶翁」이라는 다른 호를 쓰셨다. 선생의 필법은 단아하고 힘차며, 아치스러우며 중후하여 다른 명필가들이 기괴한 것만을 숭상하는 것과는 달랐다. 혹 다른 사람이 책·병풍(屏)·죽자(簇) 등을 간절히 원하면, 그 사람 앞에서 휘갈기지 않고, 비록 늘상 모시고 있는 제자일지라도 다른 데서 온 사람이면 글씨쓰기를 마치지 않고 주는 법이 없이 반드시 갈무리하였다가 기다려서 글씨를 주셨으니, 그의 근엄함이 이와 같았다.

□ 암서헌의 위치와 향방이 「陽用三間」의 제도인데, 삼면에 退柱를 세우고 동면으로 翼簷을 덮었던 까닭에 매우 蕭灑하였다. 방 가운데 서북쪽 벽에 서가를 만들고, 서면은 격장을 두어서 반은 침실로 남겨두었다. 내가 「서가를 잠자리 방 밑으로 두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더니, 「이 곳은 내가 잠자고 기거하는 곳으로 성현의 經訓을 등 뒤에 두는 것이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하였다. 이 가운데 고서 천여 권을 좌우로 서가에 나누어 꽂았으며, 화분 한 개·책상 한 개·硯匣 하나·지팡이[几] 한 개·침구·돛자리·향로·渾天儀를 두었다.

□ 남벽 상면에는 가로로 시령을 걸어, 옷 상자와 서류 넣는 부담상자 「書筥」를 두고 이밖에 다른 물건은 없었다. 서가에 비치한 書籤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어지럽지 않았으며, 매년 7월[槐夏]이면 曝曬[책을 별에 말리는 것]하였는데, 溪上 본택에 소장한 책과 번갈아 교대하여 왕래하였으므로 시기가 다소 많이 걸리거나 짧아지기도 하였다. 내가 두 곳을 출입하여 책 목록대장을 정리하여 보니 모두 합하여 1천 7백 여권이였다.

□ 모시고 있을 때, 선생께서 참고하실 곳이 혹 있을 것 같으면, 「몇째 시령, 몇째 줄, 몇째 권을 빼내어 오라」고 명하셨는데, 빼놓고 살피

보면 한 치의 착오도 없었으니 선생의 정신역량을 알 수 있는 일단이다.

□ 節友社는 암서현의 동쪽 기슭에 있다. 신유년(1561) 3월에 축조한 것이다. 선생께서 하루는 계상의 본택에서 도산으로 걸어오시면서 시 한 구절을 읊으셨다.

바위 벼랑에 꽃은 피어 봄날은 고요하고
새는 시냇가 나무에서 울어 물결이 잔잔하구나.
우연히 젊은 제자들과 산 뒤를 돌아서
한가로이 산 앞에 이르러, 考槃 [높은 선비가 온거하며 강학하는 곳]
이 어디냐고 묻는다.

□ 일찍이 내가 「이 시에는 아래·위가 생각이 한 가지로 흐르고, 각기 그 미묘한 경지를 얻은 것이 마치 曾點[증자의 이름]이 공자를 모시고 읊은 시의 「沂水에 목욕하고 舞雩에 바람쐬고 싶다」[《논어》선진편 「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라는 구절]는 기상과, 周濂溪의 庭草라는 시의 일반 의사와 같습니다」하였으며 이덕홍 등도 이런 말을 하였으나, 선생께서는 다만 「추리가 너무 지나치다」하셨다.

□ 淨友堂은 서당의 동쪽에 작은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은 것인데 주엽계의 愛蓮設의 뜻을 취하여 정우라고 하였다.

□ 幽貞門은 서당 앞의 출입처를 가린 사립문의 이름인데, 이름은 「유정」이라고 한 것은 주역의 「履道坦坦 幽人貞吉」[도를 실천하는 길이 탄탄하니 숨은 선비가 곧고 길하리라]의 뜻이다.

□ 天淵臺는 무오년(1558) 3월에 중 愼如 등에게 강가에 축대를 쌓게 하여 붙인 「滄浪臺」가 그 첫이름이다. 강가에 임한 斗截 경계에 있는 탁 트인 곳이다. 갑자년(1564) 여름에 내가 孤山으로부터 와서 선

생을 뵈오니, 선생은 지팡이를 짚고 臺上에 거니셨다. 날씨는 해맑고 景物은 화창하여 천리의 유행이 아무데도 걸림이 없는 듯한 묘함이 있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대지를 굽어보기에 족하였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연히 마음이 집중되는 이 때 마침 자네가 찾아와 주니 더욱 마음이 기꺼우이」하셨다. 그리하여 나아가 여쭙기를, 鳶飛魚躍[소리개는 하늘에 날고 고기는 물 속에 뛰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이라는 말을 子思[공자의 손자, 《중용》을 지었다 함]가 입증하기를 아래 위가 「밝게 두드러진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특별히 「소리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다」는 말을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였더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물의 자연스러움이란 이같은 理이다. 소리개가 하늘로 날고, 고기가 물에서 뛰는 것이 어찌 억지로 힘써서 되는 일 이겠는가. 잠깐 동안이라도, 「하여야만 되겠다」는 생각과 관련되면, 이것은 理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셨다.

□ 天光雲影臺는 계해년(1563) 3월에 축조하였다. 천연대 서쪽 기슭 기슭 위에 있는데, 천연대와 함께 부를 때는 天雲臺라고 한다.

□ 谷口門은 천연대와 운영대 양쪽 기슭 사이의 출입하는 洞門이고 일명 谷口巖이라고도 한다.

□ 濯纓潭은 천연대 아래에 있다. 신유년(1561) 4월 既望[음력 16일]에 선생께서 탁영담에서 배를 띄우고 조카 교와 손자 安道 및 李宏仲[이덕홍의 자]에게 「청·풍·명·월」로 韻을 나누고 「明」자로 「이승에 살다가 저승으로 가면 어떤 사람이 성현 말씀 이을까 모르겠네」[不知百歲通泉下 更何人續正聲]라는 시구를 지으셨다. 盤陀石은 탁영담 물 가운데 있다. 강에 물이 불으면 물 속에 잠긴다. 陶山記 가운데의 「與齊俱入」이라는 4자는 《莊子》에 나온 것인데 선생께서 차용한 것이다. 물길이 모여 감돌아 스치는 곳이다.

□ 石澗臺는 운영대 西城洞 동구에 있다. 임술년(1562)에 선생께서 배를 타고 淸溪를 찾으셨는데, 그 대의 이름이 곧 석간대이다. 매년 여름과 가을에 관가에서 번갈아가면서 이 대의 아래에 漁梁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선생께서는 일찍이 찾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龔岩 李賢輔선생과 함께 이 대 아래서 노닐며 踏靑詩를 지은 글이 있고, 李剛而[이름은 禎, 호는 龜岩]가 와서 도산에서 며칠 머물다가 돌아갈 때 선생께서 그를 이 대에서 송별하였다. 그 때 선생은 唐詩 「他日想思來水頭」[뒷날 이 물가에 다시 올 것을 생각하네]라는 구절을 이별의 시로 주었다.

□ 신유년(1561)에 李君美와 趙士敬(穆)·琴士任(輔)·金愼仲(富儀)·琴夾之(日休)·琴薰之(應休)·金惇叙(富倫)와 내가 몇 간 재실을 농운정사 근처에 지어 독서와 공부하는 장소로 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선생께서 그 뜻을 가상타 하여 허락하였다. 이군이 그 일을 크게 벌이고자 두 차례나 통문을 내어 멀고 가까운 곳에서 가입코자 원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 실시하게끔 되었다. 선생께서 士敬에게 준 편지에, 「조카들이 도산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짓겠다고 하고, 문원[琴蘭秀] 덕흥 등도 그랬으면 하기로 초가집 정도라면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금지시키지 않았다. 이제 들으니 두 번이나 회람을 돌려 원납자가 20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번 일은 부득이 그리고 당연히 중지하여야 한다. 속히 이 뜻을 문원에게 통기하고, 만약 淸溪[竹溪]으로 갈 것 같으면 반드시 榮州를 지날 것이니 교들에게 자세히 알려서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 뒤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여러 사람과 鄭士誠 등이 전날 지정하였던 곳마다 재를 지으니 이름하여 亦樂齋라 하였다.

□ 신유년(1561) 11월이 곧 선생의 회갑인데, 이 때 참판에서 同中樞府事로 벼슬을 옮겼을 때이다. 선생의 저술에 시 <陶山言志>와 <陶山雜詠>이 있다.

□ 명종 11년, 병인년(1566)에 주상이 도산서당과 재와 원근 산천

형세를 礪城君 宋寅을 시켜 그리게 하고, 시를 적어 병풍으로 만들어서 주상(왕)의 침실[臥內]에 펼쳐두게 하였다.

□ 만력 2년 갑술년(1574) 봄에 이 고장의 선비들이 도산에서 선생께서 강의하시던 자리에 서원이 없을 수 없다는 의론이 돌아 곧 서당 뒤 몇걸음 되는 널찍한 자리에 서원을 營建하였다.

□ 58세 되는 2월에 이율곡이 퇴계를 예방하여 사흘 동안을 묵고 강학·토론·唱酬를 하였으며, 60세 되는 경신년에 기고봉과의 「사단칠정」에 대한 변론을 썼다. 그리고 3월에 滄浪臺[뒤에 天淵臺로 고침]를 축조하였으며, 4월에는 易東書院을 지을 자리를 잡으려고 제자들과 鰲潭을 찾았다.

□ <도산서당>을 이처럼 짓기 전에 퇴계는 월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너무 거창하게 되지 말라고 공역을 중지시킨 바 있다.[《師門手簡》경오년 10월 19일자] 도산서당을 짓는 일에 대하여

□ 조카 교 등이 陶山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자 하면서 聞遠과 德弘 등으로 더불어 되는 대로 초가를 짓겠다고 하기에 말리지 않았더니 지금 들으니 兩道에 回覽의 글을 돌려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 무려 20명이 된다고 하는군. 만일 이와 같이 번잡스럽게 떠벌리게 되면 전일에 그만두게 하려고 했던 바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물며 그 가운데는 본래 뜻이 없으면서도 억지로 그 이름을 넣게 된 사람마저 한둘이 아니라 하니 이것은 옳지 못한 일 가운데서도 더욱 큰 일이라 하겠네. 뿐만 아니라 내가 조용하게 지내고자 한 것은 본래 한가로운 마음을 기르고 병든 마음을 수양하려는 것이었지 어찌 어린 아이들을 모아 학과를 권유하고 책을 읽게 하는 훈장노릇을 하려고 한 것이겠는가? 이미 바라던 바와 일치되지 아니한 일이라 허물을 꾸짖는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 올 것이네. 그렇게 되면 누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지

금 그 계획은 부득이 금지시키지 않을 수 없네. 그리고 교 등은 이미 榮州로 가서 그 사실을 그대에게 알렸을 것이네. 반드시 그리고 하루 속히 이 뜻을 聞遠에게 알려 주시오. 그대가 만일 順興에 가게 되면 반드시 영주를 지나갈테니 교를 만나보고 자세히 일러 그 일을 그만두게 해 주시오.

4. 芝山 曹好益 「退溪先生行錄」

- 퇴계의 자품은 순수하고 溫潤하기를 精金美玉과 같았다. 옆에 모시고 있으면 화기가 사람에게 스며들어 程明道가 이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었다.
- 퇴계는 십칠팔 세 때 이미 큰 뜻을 바라보아, 성현이 되고자 넓게 학문하고 힘써 실천하였는데, 만년에 이르러서는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져서 이들이[도와 덕학과 행] 한데 무르녹아 따로따로의 모습이 흔적조차 없어졌다.
- 퇴계는 거의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不遷怒], 두 번 허물을 저지르지 않는[不貳過] 경지에 다다랐다.
- 퇴계의 학문 도덕의 수련방법은 오로지 四勿[勿忘, 勿助, 勿意, 勿固]에 관한 것이었다.
- 퇴계는 참으로 能問이요 多問한 분이 아니다. 寡有하기 때문에 無實한 듯 보였고, 빈 듯하기에 범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겨누어 볼 수 없는 분이다. 이즈음 보면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퇴계의 학설은 모두 주자학에서 나왔다고들 하지만 실상은 先學 가운데 顏子의 자품과 대개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 丁淳睦 저, 「退溪評傳」(지식산업사, 1988)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 주자가 돌아가시자 문인들은 각기 그들이 들은 바를 사방으로 전수하여 본래의 뜻을 잃게 되었다. 그 유파는 차츰 이단으로 빠져들어서 마침내 斯道の 정맥은 중국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었다.
퇴계는 해외에서 수백년 뒤에 태어나서 博文 約禮의 두 가지를 발전시키고, 敬과 義를 함께 지니면서, 다른 길가지에 빠지지 않고 순수하고 바르게 한 길로 나아가 주자학의 嫡傳이 되었다. 비단 우리 나라에서 그와 비교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조차 그와 비슷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실로 주자 이후의 제일인자이다.
- 퇴계는 초년에 문득 요순시대와 같은 도의정치를 할 뜻이 있었으나 시세를 보니 이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학문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약한 염세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 퇴계의 출처 거취는 한 치도 어긋남이 없었다. 정묘년(1567)에 결연히 조정에서 물러선 것은 그의 평생 출처의 大節이다. 奇明彦의 지혜로는 大賢의 뜻을 알고도 남음이 있으려면, 세론의 물결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서 마침내 글로써 추궁하였으니 참으로 사람을 안다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겠다. 또 퇴계는 한 번도 반드시 나아가야겠다는 뜻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 조남명은 한 번도 반드시 몸을 갖추어야만 하겠다는 뜻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도, 李叔獻은 그들의 장점을 시기하였으니 탄식할 만한 일이다.

5. 艮齋 李德弘의 「溪山記善錄」

- 선생께서 일찍이 말씀하였다.
「내가 12살에 「魯論」[논어에는 魯論(20편)과 齊論(22편)이 있는데 노론은 공자 고택의 벽에서 나온 것이다]을 숙부 송재선생에게서 배

* 丁淳睦 저, 「退溪評傳」(지식산업사, 1988)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웠는데 13살에 마쳤다. 숙부께서는 과정을 엄하게 세워 세월을 허송하지 못하게 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좇아 조금도 게으르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이미 안 것은 반드시 복습하였고, 한 권을 마치면 한 권을 모두 외웠으며, 두 권을 마치면 두 권을 내리 외웠다. 이렇게 하기를 오래하니 점점 초학 때와는 같지 않게 되고 3~4권에 이르니 스스로 통하는 곳이 간혹 있었다. <子張篇>을 배울 때, 「무릇 사물의 옳은 것이 뉘입니까?」라고 여쭙었더니 숙부께서 「그렇다」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오는 마음에 석연하게 짙이는 점이 있는 것 같았다.

- 선생께서 일찍이 泮宮[성균관]에 유학하니 이 때는 기묘사회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이므로 사람들은 모두 학문이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여 날마다 장난으로 보내는 것이 습관이었다. 선생은 홀로 이러한 버릇에 휩쓸리지 않고 기거 동작이 법도에 맞았으므로 보는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흉내를 내면서 비웃었으나 사귀는 사람은 다만 河西 金麟厚 한 사람 뿐이었다. 이 무렵에 황씨 성을 가진 上舍생이 있어 《心經附註》를 가지고 있어 매우 사랑하였다. 그를 찾아 종이를 주고 一本을 얻어보았는데, 그 책의 주는 모두 장황거·소강절·정이천·주자의 어록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아도 句讀를 떼지 못할 뿐 아니라 문리를 깨치지 못하였다. 선생께서 여러 달을 문을 닫아 걸고 되풀이하여 침잠하여 때로는 실천으로 증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리로 살피기도 하고 때로는 글 뜻으로 미루어보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책을 참고하기도 하여 오랫동안 생각하여 풀어내니 자연히 마음에 이해되는 바가 있었다. 간혹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억지로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잠시 다른 곳에 두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어 허심하게 玩味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환히 꿰뚫리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다.
- 세상에 전하는 語錄의 諺解는 잘못되고 그릇된 곳이 매우 많았다. 선생께서 이를 刪定하였는데, 前賢들의 논설을 인증하고 중국의 변

증을 맞추어보니 모든 구절들이 딱 들어맞았다.

-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心經》을 얻어본 뒤로 비로소 심학의 연원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평생 동안 이 책을 신명과 같이 믿었으며, 이 책을 嚴父와 같이 공경하였다」 하였다.
- 선생께서는 늘 「나는 평소에도 《논어》의 <향당편>과 그 小註를 한 채씨[蔡沈]의 설을 외운다」고 하였다.
- 먹을 갈 때도 반드시 반듯하게 하여 조금도 한 쪽이 비뚤어지게 하지 않았다.
- 측간에 갈 때는 반드시 새벽이나 저녁, 음식을 입에 대기 전에 갖다.
-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거에 급제한 뒤 서울에 있을 때 매양 사람들이 끌어들여 날마다 연회에 참석하여 다른 일에 겨를이 없었다. 문득 무료한 생각이 들고 밤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즈음에야 다시 그러한 마음이 없어졌고 그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었으니, 맹자가 말한 바 「거처에 따라 기운이 변하고, 보양하기에 따라 체질이 변한다」[居移氣養移體]는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선생께서 을묘년(1555)에 청량산에 계셨는데, 옷깃을 바로하고 默坐하여 심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幹僧들이 격장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늘 선생께서 천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비록 「敬」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너희는 너희 부처에게 이다지도 공경스럽지 못하느냐」고 하였다.
- 선생께서 덕홍에게 「璿璣玉衡」을 만들게 하여 천문[天象]을 관찰하였다.
-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대로 운행되지만, 人道는 착함을 쌓아서 그 천도를 돌이킬 수 있다」 하였다.

- 선생께서는 일찍부터 안질을 앓고 있었는데도 책을 보시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문인들이 책보기를 그만두시라고 청하자, 「내가 알지 못하면서 책을 보지 않을 것 같으면, 병이 이 틈을 타서 들어올 것이다. 비록 조금 쉬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하였다. 碧梧公이 「안질이 이같으니 目力을 써서는 결단코 될 일이 아니니, 부득이 하면 바둑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더니, 선생께서는 「나는 비록 이렇듯 等閑하더라도 바둑은 안 둡니다」 하였다.
- 선생께서 말씀하였다.
「옛사람은 감히 스스로를 믿지 말고 그 스승을 믿으라 하였는데, 이제 사람은 믿을 만한 스승이 없으니, 모름지기 성현의 말씀을 취하여 믿어야 할 것이다. 성현은 기필코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 선생께서 시내에서 낚시를 할 때면, 잡은 고기는 반드시 놓아주었다.
- 선생께서 집에 계실 때는 農桑의 細務에 때를 놓치는 법이 없었으며, 예산 안의 지출[量入爲出]을 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였다.
- 어떤 중이 생강을 바쳤으나, 선생을 물리쳐 받지 않았다. 「너는 이것으로 생계를 하는데,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양한다」 하였다.
- 선생께서 한성에 계실 때 이웃집의 밤이 선생 댁 뜰 가운데에 떨어졌다. 선생은 사람을 시켜 도로 돌려보냈다.
- 선생께서는 비록 문인이나 젊은 사람이라도 원행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술상을 차렸으며, 마루에 내려서서 보냈다. 늘상 왕래하여 수업을 하는 사람이 문안하여도 자리에서 일어나 절하였다.

6. 雲巖 金明一의 「溪山日錄」

- 嘉靖 44년(乙丑, 1565)[명종 20년 명, 세종 44년]11월 어느날, 여러 벗들과 함께 溪上[선생의 본택]으로 선생을 뵈러 갔다. 선생께서 미령하시더니 겨우 회복되셔서 참으로 慶幸스럽다. 禹性傳(景善)이 미리 와 있었다.
- 20일, 이른 아침, 우리와 경선을 부르신다기에 들어가 뵈었더니, 선생께서 간소한 술자리를 베풀었다. 동지날[至日]이기 때문이다.
- 28일, 선생께서 종이와 먹을 내려주셨다.
- 12월 3일, 감사 姜士尙이 도산서당으로 선생을 방문하였다. 그가 떠나자 예안현감이 또 찾아와서 함께 자리를 하여 술자리가 베풀어졌는데, 선생께서 약간 거니해지면서 말씀하기를, 「오래전부터 손님영접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시고는 이러한 시한 수를 보여주셨다.

깊숙이 문혀 조출히 살고자 하여
 꽃 가꾸고 대를 길러 여원 몸 보전하네.
 찾아오는 손님께 은근히 부탁하오니
 앞으로 이 한겨울은 사람 접대 않으려오.

이것은 남들이 나를 박정하다고 할까 보아 남에게 보이지 않다가 이제 비로소 보여주는 것은 내가 박정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나의 부득이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 하였다. 이어서 말씀하되, 감사가 「찾아오는 학자들이 있습니까?」한데, 없노라고 일부러 핑계대었으나 이것은 끝이 끝대로 말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서 내가 아무나 가리지 않고 맞이한다는 후배들의 비웃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세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6~8촌간

* 丁淳睦 저, 「退溪評傳」(지식산업사, 1988)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에도 혼인을 하는데 이는 의로 보아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 였더니, 「친척간에 혼인하지 않는 것은 실로 도의를 서로 두터이하 는 것이다. 그러나 呂榮公의 일을 볼 것 같으면, 또한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 7일, 선생께서 人馬를 보내어 불러보고자 하여 떠나려고 하던 차에 외내[鳥川]에 사는 김진사[上舍] 彦遇[이름 富弼]와 금진사 夾[이름 應休]이 찾아왔으므로 함께 溪上으로 갔다. 그때 이미 景善 등이 모 시고 小酌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이즈음의 「송사를 즐기는 폐단」에 말이 미치자, 선생께서는 「盧士信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 지만, 보기 드문 사람이다. 일찌기 어떠한 사람과 송사가 벌어졌는 데, 상대방이 자신이 승소하지 못할 것을 알고 사신에게 애걸하 기를, 「내가 승소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한이 없으나, 집에는 한 사 람의 종[赤脚]도 없어서 물 길고 나무할 사람은 나 뿐이니 이제부터 천민이 될 수밖에 없노라」 하였다 한다. 이에 사신이 말하기를, 「내 가 어찌 그대의 처지가 이 쟁경까지 이른 것을 알 수 있었으리요」 하고는 곧장 소송을 취하해 버렸다」 하였다.

- 11일 납실[申谷]사람이 와서 아버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이 곳 에 세밀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명이었다. 天玉이 청량산으로부터 와서 선생께 인사를 올렸다. 진사 형님[金富仁]의 편지를 보니, 을사사화 때 귀양을 간 사람 가운데는 혹 풀려나기도 하고 혹 가까운 도로 移配되기도 하였다 한다.

- 13일, 분내[汾川]에 사는 金文卿[이름 箕報]이 술을 보내왔다. 이날 밤, 달빛은 대낮처럼 밝아 여러 벗들과 함께 걸어서 天淵臺까지 나 갔다. 강에는 가득한 빙설이 끝없이 펼쳐 있었다. 대를 내려와 답설 을 하고 흥취를 맛보고 돌아왔다.

- 21일, 계상으로 나아가 선생과 講問義疑[강의, 질문, 토론]을 하다가 말이 「鳥頭力居의 뜻이 무엇인가에 미치자, 謝上蔡가 程先生(伊

川)을 뵈고 떠나던 날에 그의 친구에게 한 말이라고 하였다. 上蔡가 돌아간 뒤, 정자께서 「상채가 떠나면서 무슨 말이 없던가?」 하였더니, 문인들이 대답하기를, 「하루 아침에 「오두역거」하니 장차 어찌 하면 좋을까?」 하였다고 하였다. 정자께서는 「益友[도움이 되는 벗]라 할 만하다」 하였다는 것이다.

대개 「오두」는 약 이름인데, 이것을 복용할 것 같으면 사람의 병을 고친다. 사람이 어진 스승 곁에서 늘상 좋은 말을 듣고 착한 가르침을 받을 것 같으면, 그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이 약으로써 몸의 병을 고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이제 상채가 스승을 하직하고 멀리 떠나가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듣지를 못하게 되니 전일의 심병이 도져도 고칠 약이 없다는 뜻으로 「오두역거」의 근심이 있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 25일, 洪益昌·禹景善이 떠나려고 歷訪하였더니, 선생께서 시 한 절구를 읊으면서 경선을 송별하였다.[시는 <聯芳世稿>에 있다]
- 27일 아침, 둘째형님[金守一, 자 景純, 호 龜峰]이 청량산으로부터 와서 선생을 뵈었다. 家奴가 아버님의 명으로 말을 몰고 왔다. 太學으로 유학토록 하였기 때문이다. 부득이 선생님[函丈]을 배별하고 둘째형님과 함께 떠났다. 아우 사순[金誠一, 士純, 鶴峯]만이 홀로 남아서 黯然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나가는 길에 달내[月川]의 趙士景(穆)에게 들렀다. 琴聞遠(蘭秀)이 멀리서 술을 들고 왔다. 저녁 무렵에 沙月 川村에 투숙하였다.
- 28일 아침 「내 앞[川前]」으로 돌아왔다.
- 병인년(1566) 정월 8일, 집에서 감회가 있어, 近體시 3수를 읊었다.

삼십년 스승님 문하에서 좋은 세월
 늘그막에 찾아보니 감개가 깊구나.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몸이

힘써 공부하여도 성현의 마음을 어찌 알리.

蒙泉[도선서당에 있는 샘]에 이르러도
진흙덩이 뒤섞이고
古鏡[퇴계가 엮은 《古鏡中磨方》이 있다]을 닦으려 해도
티끌이 다시 끼이니
어찌하면 「사업」을 마칠 수 있을까 묻고자
오늘부터 애써 찾고자 하네.

영재들은 모두 名利에 골몰하니
세상에 누가 있어 홀로 이 먼지를 벗겨줄까.
과거보라는 영이 내려 기염을 토하니
잠시 이름을 드날려 미간을 문득 펴보려니.

성현의 사업으로 보면 이 무슨 것인가?
성리 연원은 드러내지 못하네
홀로 선생님 계신 곳 향하여 생각하노니
「미인」[스승을 말함]은 옥과 같아 사모하는 마음 잇을 길이 없네.
(건곤에 홀로 서 생각하니
미인을 생각하는 머리 서쪽으로 돌리네)

이내 몸 태어난 성품이 참됨을 탄식하네.
어찌타 제몸 버리는 일에만 골몰하였는가?
흙탕물에 빠진 구슬, 빛 더욱 밝듯이
거울에 가려진 먼지와 때를 새롭게 닦고자.

홀어진 마음을 거두어드니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곧 알겠네
인을 찾는 참된 깨달음이 남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내일 아침 다시 잘못된 길로 떠나려니,
칠 같은 몸을 씻고 돌아올지 모르겠네.
[성균관 「원점」까닭에 서울로
가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다]

또 삼절을 지었다.

하릴없이 이렇저렇 지내다보니

가난함도 부귀도 원래 상관이 없네.
 참된 즐거움 찾는 일 무엇인들 못하랴.
 덧없이 늙어가는 이 몸 길가에 헤매네.
 궁합과 통합은 운수소관인데
 사람마다 제가꿈 드높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로세.
 가석하구나 은혜를 저버리고 제몸만 생각하니
 고삐 풀린 말을 몰아 오색 구름가로 달린다.

한겨울 선생 계신 곳에서 있었더니
 한 번 떠나온 뒤 소식을 드물어
 그윽히 홀로 계시는 모습 어떠하온지.
 꿈길에 찾아드니 기꺼이 맞이하시나
 깨어보니 한바탕 꿈일레라.
 [꿈에 「계상」에서 선생을
 뵈고 느낌이 있어 짓다]

- 9일, 사람을 도산으로 보내서 침구를 가져왔다. 편지 한 장을 올리
고, 시 여섯 首를 올렸다.
- 18일, 士純이 계상에서 왔는데, 선생께서 소명을 받으셨다 전한다.
그리고 선생이 내려주신 시 2절을 받았다.

그대는 山南으로 가고 나는 山北에 있네.
 한겨울 아무 소득 주지 못하고 부지런히 왕래하더니
 떠난 뒤 간담에서 나온 시를 보내와
 높은 뜻 매우 가상스러워
 글에 나타난 것만 아니라라.

높은 뜻은 정녕 글에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네.
 도는 자신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니 어찌 듣기 어려울까?
 이즈음 교양은 오직 명성과 이익일 뿐,

그대 성균관(芹宮)에 가거든 잘못된
 세속일에 물들지 말게나.

- 8월 26일, 계상에 이르러 선생을 뵈었다. 밤에 逢原[손자 안도의

자]과 자면서 漢城試가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나누었다.

- 27일, 아침에 선생을 뵈었더니, 이즈음의 선비의 풍습[土習]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씀하였다.
 - 정묘년(1567) 6월 6일, 계상으로 향하였다. 저녁에 惺惺齋, 琴聞遠, 琴蘭秀와 함께 잤다.
 - 7일, 계상에서 선생을 모시고 조용히 말씀을 나누었다. 선생께서 <箴銘>을 써주셨다.
 - 무진년(1568) 정월 29일, 새벽에 예안[宣城]으로 선생을 뵈러 떠났다. 沙月川에 이르러 士純을 만나 함께 陶山精舍에 이르니 서울 사는 趙振(起伯)과 李德弘(宏伸)·金士元(景仁)이 같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는 중이었다. 계상으로 나아가 선생덕의 문을 밟는 순간, 마침 선생께서 소명을 받고 마침내 溪亭을 나서려는 중이었다. 성주에 사는 鄭速(道可)와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께서 들라 하시므로 나아가 뵈었다. 선생께서는 被召된 것이 매우 미안한 기색이었다. 왕의 유시[聖諭]의 대의는 다음과 같았다. 「경은 여러 대의 구신으로 덕업이 높고 학문이 바르다는 것은 비록 거리의 백성이라도 누가 모르겠는가? 내가 들은 바 오래이다. 예부터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어진 신하를 맞이한 다음에 능히 그 덕을 이룬다 하였는데, 하물며 나같이 어릴 때부터 嚴師의 교훈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라? 선왕의 말년에 경이 조정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반드시 新政의 무도함과 尊賢의 불성실한 까닭이리라. 대비께서도 「나는 지식이 없고 또 병든 몸이라서 어찌 능히 교도할 수 있겠는가. 교도하는 일은 오직 李某라야만 한다」고 하셨다. 조정에 어찌 덕이 높은 신하가 없을 수 있겠는가. 경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북두칠성과 같이 하니, 진퇴를 어려워 말고 급히 올라와 조정에 머물면서 어리석고 못난 나를 補翼하라」 하였다.
- 살펴보니 문장이 지성에서 나와서 왕의 학문이 고명한 것을 알 것

같았다. 도산으로 물러와서 여러 벗들과 밤중까지 講話하였다.

- 30일, 道可는 성주로 돌아가고, 밥을 먹은 뒤 여러 벗들과 작별하였다. 사순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월천에 이르러 趙士敬과 잠시 말을 나누다가 琴聞遠이 또한 와서 이야기하였다가 중로의 갈림길에서 사순은 남실[申谷]으로 가고 나는 밤을 다투어 집으로 돌아왔다.
- 21일, 낮에 외내[鳥川]의 金愼仲[金富儀의 자]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유숙하였다.
- 22일, 琴夾之[琴應休의 자]의 집에서 아침을 먹고, 신중의 아들 厚와 함께 계상으로 나아가 하루 종일 모시고 말씀하였다. 저녁 물림에 자리로 물러나서 위와 같이 기록하였는데, 선생의 말씀에 「도는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못한다. 어찌 일상생활 밖에서 일종의 별다른 도가 있겠느냐?」라 하였다.

7. 月川 趙穆의 「文純公 言行總錄」

□ 선생은 天資가 穎悟하고 神采가 精明하였다. 성품은 어릴 때부터 단정하고 공경하였으며 쓸데없는 희롱을 즐기지 아니하였고, 성장하면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도의를 수양하고 총명 정직 孝悌忠信하였으며 精純하고 溫粹하여 모나지 않았다. 기질은 和하면서도 굳세고 言辭는 부드러우면서도 바르고, 학문은 넓으면서도 요격하지 아니하고 개결하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여 고법을 따르면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처함에는 어느 한편으로 흐르지 아니하며, 연약한 몸이 옷을 이기지 못하는 듯하였으나 道에 나아가는 뜻은 금석같이 굳어서 소연히 멀리 티끌 세상을 벗어난 듯하여서 操執과 수양의 공효가 일용행사에 저절로 나타났었다.

* 李熙大저, 「退溪門人錄」(태양사, 1983)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 爵祿의 영광을 깊은 구렁에 빠지는 듯이 두려워하여 의리의 진리를 탐하기는 입에 맞는 고기를 좋아하듯 하여 학문이 이미 성취가 되었어도 급급하여 오히려 능히 미치지 못한 듯하였고 덕행이 이미 수련되었으면서도 겸겸하게 아무것도 얻은 바 없는 듯 하였으니 옛사람이 이른 바 작품이 특출하고 수양이 가득차서 나아가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한 말이 곧 선생 같은 이를 두고 일컬은 것이 아니겠는가?

□ 선생은 태어난 지 일년도 못되어 부친을 여의고 나이가 아직 열살 미만에 이미 독서를 좋아하여 비록 父師의 권면이 없어도 날마다 과정을 정하여 외우고 읽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응하고 대답하고 절하고 꿇어앉음에 온화하고 공손하였다. 조금 성장하여서 논어 소학 등의 글을 읽을 때는 더욱 스스로 경계하여 깨닫고 힘써 청렴하고 가디듬어 읽으셨다. 언어행동은 반드시 예법을 따라 더욱 愛親敬長에 독실하였다.

□ 새벽에 닭이 울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衣帶를 반드시 단정히 하였으며, 대부인을 문안할 때는 음성을 부드럽게 기운을 낮추어 그리고 얼굴빛은 순하게 하여 조금도 실례됨이 없었고, 저녁에 잠자리를 보아 드릴 때도 이와 같이 하여 자리를 펴고 이불을 거둘 때도 반드시 몸소 친히 하였으며, 일찍이 한 번도 뽀시는 아이들을 시키지 않았다.

□ 仲兄과 더불어 여러 해 동거하면서 나이가 수년 위이지만 엄하게 조심하여 섬기고, 嫂叔간에 대할 때는 반드시 예로써 공경하고 대개 겸손하여 피하고 감히 가까이 하기를 항상 조심하였다. 이러하므로 대부인께서 일찍이 말씀하기를 『남들은 말하되 자식들은 반드시 부모의 가르침을 기다려서도 그 말대로 시행을 잘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내 이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도 지도하고 가르친 바 없어도 일찍이 한 번도 잘못을 쓰지 않거나 떠를 매지 않거나 다리를 쪽 편다든지 비스듬히 눕는

다든지 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셨으니 대개 타고난 천성이 그러하였다.

□ 경전을 널리 보고, 검하게 性理諸書를 통독하여 이미 성현의 事業大義를 깨달아 여기에 마음을 두고 깊이 服膺한 지가 오래인지라, 여러 사람과 함께 지체할 때도 옷깃을 여미고 단정히 앉아서 혹은 글도 보고 혹은 종일토록 묵묵하면서 閑話雜說을 하지 아니함에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며 두려워하였고 비록 평소 교양이 없는 사람들도 선생을 대하게 되면 역시 모두들 몸을 단정하게 스스로 계칙하여 감히 방자하지 못하였다.

□ 이십여세에 진사로서 성균관에 있을 때 을사사화를 겪은 뒤인지라 선비들의 습속들이 날마다 방탕해져 가고 있어서 선생이 하는 일을 보고 모두 웃고 업신여겼으나 선생은 깨끗하게 뜻을 바꾸지 아니하고 초연히 林壑에 뜻을 두고 출세하여 이름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다. 중년에 학문 공부에 각고면려한 탓으로 모습이 파리하고 수척하여 병을 얻었다. 그리고 세속과 더불어 함께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진사에 선발된 이후에 다시 더 나아갈 뜻이 없어 泉石 사이에 자유롭게 노닐면서 나물 먹고 물 마시는 생활을 즐기면서 몸을 마치려 하였으나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는 늙어가므로 본의는 아니지만 과거에 나아가 현달한 길에 올랐으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 을사사화 때는 불측한 변에 빠져들어 갈 뻔했기 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退溪에서 자리를 잡고 삶에 世味가 더욱 얽어져서 글을 읽어 도를 구하려는 뜻이 더욱 굳어지고 확고하여 일찍이 서울에 체류할 때 얻어가지고 온 朱子全書를 즐겁게 읽으면서 문을 닫고 고요히 지내고, 종일 꿰어앉아 뜻을 오롯이하어 俯讀仰思하면서 참을 알고 실지를 깨달음을 요령으로 삼아 그 학설을 독실히 믿고 깊이 즐거워함은 친히 귀로 듣고 면대하여 받음과 다름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견해가 더욱 精明하고 그 조예가 날마다 더욱 순수

공고하여 모든 경전에 있는 微詞奧旨를 마치 깊은 沼를 더듬어 진수를 캐어내듯이, 바닷속에 들어가 용을 보듯이 이미 그 아는 바를 미루어 그 나머지에까지 통달하였고 뒤섞이어 얽힌 곳에까지 모두 간추려 빗질 하여서 해결하고, 그 궁극을 더듬어 연구하다가 만일에 얻지 못하면, 혹시 사람들에게 자문하여 해결을 보게 되면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하여 예전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다 녹여 해석하기도 하고, 濂洛諸書에 이르기까지 탐구 연찬하고 그 속에 넉넉하게 잠겨서 마음으로 경험하고 몸소 체험하여 마침내 그 실행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세에 기리고 천거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서법이 정묘하다느니, 혹은 문장이 아름답다느니, 혹은 겸손하다느니, 혹은 청백하다느니 하면서 그 아는 자라 하여도 겨우 경전을 밝히고 행실이 훌륭하다는 것에 불과하였다.

□ 나라에서 부르는 명령이 여러 번 있었으나 나아가고 물러감에는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선생의 도학을 향한 일념은 마치 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화살이 과녁을 향하여 날아 가듯이 또는 백번 단련한 금과 같이, 朴實한 地頭에 요점을 두고 공부에 몰두하여 大中至正한 도에 이르기엔 목적을 두었고, 다만 한가지의 예능과 한가지의 실행만으로 이름을 이루는 데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평상시에 거처할 때는 날마다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의대를 갖추고 앉을 때는 무릎을 거두고, 설 때는 비스듬히 서지 아니하고, 어깨와 등이 굽지 않고 발랐으며, 視瞻은 단정하게 행보는 조용하게 말씀은 조심하여 깨끗하게 걸림도 없고 박절함도 없게 교만하지도 않고 태만하지도 않게, 수양과 습성이 쌓이고 거듭되어 표리가 융화되어 맑으셨다.

□ 周旋進退가 화하고 너그러워 법도에 맞고 語默動靜이 단정 자상하며, 그리고 조용하고 태연하여 분기를 띤 기미를 말씀에 나타내지 아니하고, 婢僕들에게도 나무람과 꾸짖는 말씀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음식 의복등절에 이르러서는 더욱 절약검소하게 하여 사람들이 능히 견디지 못할 만하여서도 태연하였으니 천성이 그런 것 같았다.

□ 자제를 가르치는 데에도 자정과 은의로써 하고, 집안 사람을 거느리는 데에는 엄하면서도 은혜스럽게 하였다.

□ 어른을 섬기는 데에는 자신이 존귀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태만하지 아니하였고 제사를 받드는 데에는 근력이 쇠퇴하다고 하여 스스로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宗族간에 처하는 데는 반드시 돈목하게 하고, 손님과 벗을 대접하는 데는 한결같이 부드럽고 공경하며 親疎貴賤을 막론하고 모두 적당하게 하였고, 吉凶弔慶에도 각각 그 환경과 정리에 적합하게 하였고, 집이 아무리 가난하여도 일찍이 남에게 구차스럽게 구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임금께서 내려 주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모든 이웃에까지 다 나누어주고 자기 주변에 대해서는 薄하게 하고 남을 도와주는 데에는 후하게 하였다.

□ 생활은 간소하게 몸가짐은 치밀하게 하여 威儀와 動靜하는 사이 사물을 수용하고 대접하는 일에 각각 그 도리에 합당하지 아니함이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고을 사람들은 그 감화에 승복되고, 멀리 있는 사람은 그 덕행을 흠모하여 착한 자는 그 도덕을 즐겨서 따르고, 비록 착하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그 의리를 두려워하여 무릇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취품을 한 후에 실행하였다. 그러므로 선생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들 『퇴계선생』이라 일컫고 관직의 이름으로는 일컫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벼슬의 직위가 선생에게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뜻함이었다.

□ 학문을 배우려 모여드는 선비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많았는데, 그 실력의 깊이에 따라 알맞게 계발하여 순순히 타이르고 이끌어 주었고, 한결같이 권태를 잊고 心術을 밝게 열어주고 그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먼저 하였다. 그 말씀은 곧 성현의 교훈으로써 하였고, 그 이치는 곧 마음으로 얻은 것이고 그 쓰는 것은 세상만사에 고루 퍼졌고 그 체

득한 것은 한몸에 갖추었다, 그러므로 종일 논의한 바는 공자를 비롯하여 맹자의 제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그 나오는 말씀이 무궁하고 또한 더욱 친절하였으며, 의리를 궁구하여 알아내고 자신을 반성하여 실천하고, 우선 자기 수양을 위한 공부로써 홀로 있을 때의 공부에 더욱 독실하여 확충하였으니 비록 세상에 드러내어 쓰이게 된다면 나라와 천하를 바로 잡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로 말미암아 먼 지방으로부터 선생의 덕망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선비들이 수삼백리 길을 온통 발이 부풀어 터져가면서 선생에게 배움을 청하였으며, 達官貴人에 이르기까지 또한 마음을 기울여 향모하였는데, 학문을 강론하고 몸을 닦는 공부로 본을 삼았다. 이에 경서의 강의에 있어서 俗學者들의 고집과 천착한 것은 자세히 참고 정정하여 바로 잡고, 계몽에 의심스러운 학설에 있어선 모든 학자들의 여러 의론을 가로 세로 통달하게 하여 그 쌓이고 얽힌 뜻을 밝히어 내었다.

□ 晦翁이 몰한 이후로 학문의 枝派가 드리어 갈라져서 학자들이 그 적실한 정통을 지키지 못한 고로 理學에는 통론이 있고 학술에는 통일이 있어야 하거늘, 朱子書는 編秩이 너무도 많고 넓어서 능히 그 요령 취지를 바르게 구명하지 못하므로 그 要語를 冊節하여 聖學이 비로소 발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天命圖說에 있어서는 원래 鄭處士 之雲이 지은 바를 가지고 周濂溪 및 子思의 설을 참고하여 그 잘못됨을 고치고 빠진 것을 보충하여 무릇 인물의 품부와 理氣의 化生이 환하게 손바닥을 보는 듯하였으며, 靜養動察의 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므로 세속의 陋習을 씻어버리고 성현의 심오한 이치를 계발하여 후학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준 것이 제자들과 문답한 편지 중에 발견될 수 있는 바, 명백절망하여 精하고 微하고 굵이지고 실오리처럼 미세한 데까지 모두 해명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이해시켰었다.

□ 그리고 중국의 道學이 그 전통을 잃어서 陳白沙, 王陽明의 학설에 흘러갔으므로 그 학설의 근본을 캐내어서 그 잘못된 점을 極言竭論으로 배척하였으니 白沙의 詩教, 陽明의 傳習錄 跋語에 이르시기를 『우리 동방에도 도학에 뜻을 두고 학문을 지향하는 선비가 없지 않으나 혹은 象數의 學에 걸리기도 하고, 혹은 理氣의 분파에 매혹되어 가까운 자는 그 거풀이치에만 입에 익었고, 먼 자는 아득하고 먼 지경에 지나치게 마음이 이끌리어 혹은 백가지 도를 듣는다 하여도 爲己의 학문 한가지만 못한 것이 허다하여, 능히 널리 배우고 살펴서 묻고 정밀하게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여 斯道를 찾아 나아가는 사람이 좀처럼 없다.』고 하였다.

선생은 자나깨나 이것을 근심하여 吾道の 병통으로 여겼으므로, 그 학문은 먼저 가깝고 작은 데서부터 멀리 큰 데까지 미쳐서, 精粗가 합치하여 안팎이 겸비하고 지행이 함께 나아가 동물과 식물이 함께 생성하여 번거로움을 인내하고 쓴 것을 맛들여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한시 반각도 마음을 풀리지게 아니하였으며, 한밤중에 일어나서 사서·심경 등의 글을 외워서 스스로 책려하였으나, 선생은 이것으로도 도를 다했다고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했으며, 허심 겸손하게 문기를 좋아하고 가까운 데를 성찰하여 자신이 언지 못하면 사람들의 말을 좇아서 그것이 이치에 맞으면 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物我를 相資하고 피차가 함께 발전하여 자신도 이루어지고 사물도 이루어지는 도를 구비하게 하였다.

□ 한평생에 글이란 글은 아니 읽은 것이 없으나 잡되고 허탄하고 부화한 글을 아니 읽고, 어떤 이치라도 궁구하지 아니한 것이 없이 도덕과 仁義에 귀납시켰다. 사람을 교훈하는 데는 순순히 차례가 있어서 大本大原에 대해서는 반드시 숨김없이 지시하였다. 대개 학자들이 비록 절실하고 가까운 공부에 급급하지 않을 수 없지마는 넓고 깊은 도학의 體用에도 살펴야 할 것이나, 그 학설은 日常受用에 절실한 것이었으니, 비유하건대 많은 군사가 말을 타고 멀리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

허황한 학설이 아니었다. 만년에 와서는 禮書에 유의하여 고대로 전해 온 것을 토의 강론하고 시의를 참작하여 학자들을 가르치고 아직 저술하여 글을 이루지 못한 격물치지설에 이르러서는 평소에 속된 해설을 배격하고 그 학술을 저술하였는데, 나중에 고봉 기명언의 질의를 받고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前說의 착오된 것을 깨닫고 다시 論定하여 답하고자 하였으나, 선생이 이미 늙고 병이 들었는지라, 능히 쓰지 못하며 자제들로 하여금 달고토록하여 일찍이 서로 더불어 논변한 것을 각처에 보내게 하셨다. 또 易箒하시기 수일 전에 일찍이 정정하신 心經註釋의 잘못된 것을 東都(경주)에 보내서 판본을 고치게 하였다.

□ 아! 진실로 선생의 학문에 돈독한 일념의 단심을 입증할 때까지 그치지 아니하였음을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도덕의 높고 낮음과 학문의 깊고 얕음은 나같은 末學으로서도 감히 알지 못할 것이며, 도학 신념의 독실함과 학문을 좋아하는 성실함은 노여워하지도 후회하지도 싫어하지도 권태하지도 아니하셨으니 비록 晦翁(朱子)의 세대라고 하더라도 적합하였으리라. 衿懷가 표쇄하고 풍정이 고상하여 매양 아름다운 산수와 한가하고 기절한 곳을 만나게 되면 혼자 술병을 차고 가기도 하고, 혹은 동반하여 거닐면서 종일토록 읊고 돌아오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흥금을 활짝 열고 정신을 맑게 하여 성정을 資養하는 일로 한가한 틈을 타서 마음을 놓고 자연을 구경하는 자들과는 견줄 바가 아니었다.

□ 시를 읊고 문장과 글씨를 쓰는 일은 학문을 연찬하는 여가의 일로서 일찍이 典雅研精의 聲譽가 있었다. 만년의 작품 중 화려하고 색채나고 날카롭기가 칼날같은 문장은 떨어내리고 끊어버리고 거두고 숨기어, 그저 沖澹하고 건실하고 蘊奧한 문장으로 단정하고 방정하며 치밀한 작품으로 마치 두 손으로 쉽사리 풀 듯하였으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옥으로 다듬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으며, 또한 품위의 두터움과 교양의 심오함을 보게 하여 이와 같이 날로 전진하였던 것이다.

□ 늦게나마 도산에 조그마한 정사를 짓고서 정신을 너그럽게 하고 성정을 기르는 곳으로 삼아 그 효효자득한 정취가 自撰하신 詩記 중에 나타나 있고, 또 陶山四時吟과 陶山十二曲을 지어 조용히 道學에 맞을 들이고, 무궁한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장차 이렇게 스스로 늙으리라 하셨다.

□ 명종 말년과 今上(선조) 즉위로부터 國恩을 내리심이 심히 무거워서 자꾸만 잇달아 거듭 부르심을 입을 때마다 선생은 스스로 몸둘 바를 몰라 하셨으며, 마냥 한 번씩 召命이 있을 때마다 작위가 올라가게 되면 간담에서 우러나오는 간곡한 뜻으로 벼슬 받기에 난처함을 진달하셨다. 그렇게 되면 조정에서도 그 간곡한 성의를 이해하고 혹은 다른 벼슬을 갈아주기도 하고, 혹은 직책을 맡기지 아니하기도 하였으니 결국 그 마음을 위안하여 반드시 부임해 줄 것을 바라서였다. 선생은 또 군신의 의리를 중대하게 생각하여 임금께서 내리신 諭旨가 간절하면 서울에 가기는 하여도 한 번도 오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대개 그 一進一退와 一去一就가 權의 輕重을 다는 것과 같았고, 度가 長短을 재는 것 같아서 한치 한눈만한 일도 반드시 살리고 한자 한푼만한 일에도 실수함이 없었으니, 세속 사람의 얇은 견식으로서는 능히 알지도 못할 것이며 또한 감히 쉽사리 논평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항상 胡文定公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말하고 침묵함은 마치 차고 따뜻하고 굽주리고 배부른 일과 같아서 스스로 참작할 줄 알 것이며, 남에게 결단을 받을 수도 없으며, 또한 남이 결단을 내릴 바도 못되는 것이라.』하셨다.

□ 대개 제왕의 誠意正心の 학문과 성현의 懲忿窒慾 개과천선의 방법은 혹은 면대하여서 혹은 啓筭를 올려서, 혹은 圖解로 著說로서 그 근원의 정밀한 데까지 횡으로 논파하고 종으로 설명하기를 丁寧懇致하게 하여 다시 미진한 데가 없이 하였다.

□ 文昭一議에 이르러서는 태조 동향의 位를 정하여 남북으로 昭穆의 순서를 삼대의 종묘 位向과 합치되게 하였으나, 시행까지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愛君憂國하는 마음만은 비록 한가롭게 거처할 때라도 마음속에서 잊은 바가 없었으니, 만일 조정에서 한가지 政事라도 실정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얼굴에 근심스러운 빛이 나타나고, 한가지 일이라도 得政을 했다고 하면 기쁨이 언어에 나타났었다. 만년에 생각하신 바는 輔養君德하고 淸源正本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하시면서 매양 賢士大夫를 만나 간곡히 격려하셨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선생은 도의를 사용하기는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이 하고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이 하셨다. 그러므로 의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비록 사람들의 그르다는 웃음을 받을지라도 조금도 거리끼지 아니 하셨다.

□ 불려도 오지 아니하고 불들어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조정의 벼슬아치로부터 아래로 이름없는 선비에 이르기까지 고집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혹이 없지 않았으나, 언제나 확고부동해서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의리에만 따를 뿐이었었다. 이처럼 선생이 처신함은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였으나, 몸소 실천한 바는 고인에 견주어도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동방 사람들이 마치 상서로운 기린이 숲속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았고, 봉황새가 천길을 나는 것처럼 생각하였고, 마치 태양이 중천에 떠있는 것처럼, 높은 뽕뿌리가 우뚝 솟은 것처럼 우러러 보았다.

□ 그러나 선생은 스스로 이르기를 『헛된 이름으로 높은 작위를 취하여 강호에 처해 있으면서 이름만 조정의 官籍에 두고 있음을 평생에 가장 큰 근심이라』고 하셨다.

□ 그리하여 벼슬에 나아가기만 하면 곧 물러 올 것을 빌었고, 만년에 와서 벼슬을 사임하는 예규에 따라 세 번 잔을 올려서 致仕할 것을 간절히 빌었으나 윤험을 얻지 못하였다. 또 질병이 들어서 유언으로 자제들에게 훈계하기를 「내 죽은 뒤에 비석을 세우지 말고, 禮葬(政府葬)을 사양하며 다만 「退陶晚隱」의 호만 새겨 묘 앞에 세우라」고 하셨다.

□ 오호라! 이것이 진정 선생의 평소 겸허한 뜻이었다. 선생의 학문을 배우는 자는 비록 많으나 그 뜻을 아는 자는 드물었고, 아는 자는 설혹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얻은 자는 더욱 적은지라, 그러므로 덕행의 美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나중에 선생의 학문을 잘 알아 읽는 자가 있어서 마땅히 이러한 면을 구명한다면 선생의 마음을 알 것이리라. 위로 주자의 세대와의 거리가 거의 400년이 되고 地勢의 거리가 또한 거의 만여리가 되는데 선생은 오히려 그의 글을 읽고, 그의 義를 구했고, 그의 道를 통달하였다. 만약 후세의 사람들이, 선생이 晦翁의 心學을 배우듯이 선생의 학문을 배워서 구한다면, 그 도학에 이르는 것이 멀지 아니하리라.

□ 생각하건대 우리 동방의 좁고 고루한 선비들은 극히 국한된 견문에만 사로잡혀 위에서 전해 줌이 없었고, 아래서 이어받은 바 적어서 비록 뜻을 품은 이가 있었다 할지라도 목적인 바에 도달한 자가 드물었다. 오로지 학문의 正大함과 의리의 精深함과 연구가 철저한 데 도달함과 操履가 체계적이고 확실함과 마음을 침잠해서 道를 체득하여 德을 이룬 자를 찾는다면, 穆의 소견으로는 오직 선생 한 분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 산이 무너지고 들보가 꺾여졌으니 吾道를 의탁할 곳이 없구나.

嗚呼痛哉라!

8. 思庵 朴淳의 「退溪先生行略」

□ 도가 행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이었다. 하물며 우리 동방은 한쪽에 치우쳐 멀리 있어, 箕子 이후로부터 상하 수천년 동안에 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는가. 선생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질로써 초연히 흠어지고 묵은 책 속에서 홀로 공부하였는데, 그의 학문은 주자의 글을 주로 하였다.

□ 지성으로 위우고 자세히 연구하여, 오로지 下學을 뜻했었다. 차라리 알을지언정 깊은 것은 없고, 차라리 낮을지언정 높은 것은 구하지 않아서 쉽고 실제적이요, 확실하고 마땅한 것에서 시작하여 차차 나아가 차례가 있었다.

즉 이른바 致知에서 知止로, 誠意에서 平天下로, 灑掃應對에서 窮理 盡性으로 나아갔으니, 이것은 선생의 기약한 바로서, 날로 힘썼던 것이다.

□ 절개는 더욱 굳고 식견은 더욱 높으며, 하례를 살피고 사물을 밝혀 확연히 마음으로 깨달았으니, 환하고 막힘이 없어서 걸이나 속에 잡된 것이 없고, 반드시 절도가 맞았다. 혹시 후배들이 가르침을 청하면 서로 묻고 대답하기를 온종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하는 말은 언제나 뜻을 세우는 것을 먼저 하고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을 중히 여겼으며, 그 가르침은 자세하고 친절하였고, 평의하고 명백하였다.

□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기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니, 비록 시골에 물러가 있어도 그 마음은 언제나 조정에 있었다. 그래서 항상 임금의 덕을 도와 기르고 유림들을 진정시키는 것을 가장 먼저 할 의무로 삼았다.

□ 본래부터 벼슬에는 뜻이 적었지만, 종종 말년에 큰 기관에 있고 서부터 비로소 물러갈 뜻을 결정하였다. 이때부터 조정에는 노래 머무르지 않았으니 그의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감은 늙어감에 따라 더욱 드

러났었다. 남 모르게 간직한 큰 용기가 만 길이나 높게 꺾꽂이 섰으니, 비록 賁·育(옛날 勇力으로 유명하였던 孟賁과 夏育을 가리킨 말)이라 스스로 일컫는 사람이라도 그의 뜻을 빼앗지 못했다. 선생이 처음에는 자기를 깊이 감추어, 비록 학문에 힘썼지만 말에나 문자에 깊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 친구까지도 그가 도학의 선비인 줄은 잘 몰랐다. 그러다가 나이 더욱 많아지자 덕은 더욱 높아져서 몸을 극복하여 마음을 기른 지 이미 오래 되니, 그 맑고 화려함은 저절로 빛나고 실상은 스스로 충실해져서 감추려야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학자들은 많이 모여들어 그를 스승으로 높여 섬겼다. 바른 학문을 밝게 드러내고 후배들을 끌고 인도하여 孔·孟·程·朱子の 도가 불꽃처럼 우리 동방을 밝히게 한 사람은 오직 선생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번역문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발행한 국역 퇴계집에서 인용한 것임>

9. 栗谷 李珥의 「退溪先生遺事」

□ 선생은 성품과 도량이 온순하고 순박하며 순수하기가 옥과 같았다. 성리의 학문에 뜻을 두었으므로 젊어서 과거를 보아 급제하였으나, 벼슬하기를 즐기지 않으셨다. 을사사화에 李芑가 선생의 명예를 꺼리어 나라에 아뢰어서 관작을 깎아 버리니, 사람들은 모두 억울한 일이라 일컬었다. 그래서 이기는 다시 아뢰어 벼슬을 회복시켰다. 선생은 여러 간신들이 권세를 잡는 것을 보고, 더욱 조정에 나설 뜻이 없어서 벼슬이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으셨다. 명종은 그의 속세에서 물러남을 아름답게 여겨, 여러번 벼슬의 품계를 올려 資憲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 禮安의 退溪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스스로 퇴계라고 號하였다. 의식은 겨우 유지하였으나 담박한데 맛을 들여 勢利와 紛華를 뜯구름같이 보았다. 만년에 도산에 집을 지으니 자못 林泉의 흥취가 있었다. 명

종 말년에 부르는 명령이 여러번 내렸으나 굳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
 으매 이에 명종은 “어진 이를 불러도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詩題로 내
 어 가까운 신하를 시켜, 시를 지으라 하시고, 다시 화공을 시켜 그가
 사는 도산을 그려서 바치게 하셨으니 선생을 생각하심이 이와 같았다.

□ 선생의 학문은 의리가 정밀하여 오로지 주자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 밖의 여러 다른 학설도 겸해서 낱낱이 천착했으나, 주자의 학설로서
 절충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언제나 한가히 혼자 있으면서 典墳 이외의
 다른 것에는 마음을 걸지 않았고, 혹 때로는 水石을 찾아 거닐면서 생
 각한 바를 읊어 한가한 흥을 나타내었다. 학자들이 혹 무엇을 물으면
 곧 자기의 아는 바를 다 일러 주었고, 그리고 또 사람을 모아 자기 스
 스로 스승인 체하지 않았다. 보통 때에도 잘난 체 하지 않아 조금도 남
 과 다른 것이 없는 듯하였다.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나 사양하고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어서, 남이 무엇을 보내어도
 의가 아니면 끝내 받지 않았다.

□ 그때 임금이 처음으로 位에 오르니, 조정이나 백성들은 모두 올바
 른 정치를 바랐으며, 선비들의 여론은 한결같이 “선생이 아니면 임금의
 덕을 성취시키지 못할 것이라” 했고, 임금의 뜻도 역시 선생에게 촉망을
 가지셨다. 세상이 衰하고 타락되어 儒者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아
 니라, 임금의 마음이 바른 정치를 하기에 정성되지 않고, 대신들도 또
 한 학식이 없어 한가지도 시험해 볼 것이 없음을 보고, 선생은 간절히
 벼슬을 사양하여 꼭 물러나기를 결심하셨다.

□ 陶山으로 돌아온 뒤에는 한 마디도 그때의 정치나 세상 여론에 말
 이 미쳐 간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세상은 그가 다시 나오기를 바라
 고 있었다.

□ 그러나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시니, 그때의 연세가 칠십이셨다. 조

정이나 백성들이 모두 슬퍼하였고, 임금께서도 부고를 듣고서 못내 슬퍼하여 영의정으로 추증하시고 일등의 예로서 장사하게 하셨다.

그 자제인 穉이 선생의 유언이라 하여 禮葬을 사양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門徒 학생들이 줄을 지어 제문을 갖추고 제사를 지내었다.

□ 선생은 비록 별다른 저서는 없으나 폭 넓은 이론으로서 성인의 법을 발휘하고 현인의 교훈을 闡揚한 것이 세상에 많이 전해지고 있다. 중종 말년에 花潭 徐敬德이 도학으로 세상에 이름이 있었으나, 그의 학설은 많이 氣를 理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선생은 그것을 잘못이라 하여 낱낱이 설명하여 따지니, 그 말이나 뜻이 밝고도 환해서 학자들은 모두 그것을 깊이 믿었다. 그때 유교의 宗長이 되어 趙靜庵 뒤로는 그를 겨룰 사람이 없었는데, 그 재주나 그릇(器局)은 혹 정암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나 의리를 깊이 연구하여 精微함을 다하기는 정암이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번역문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번역·발간한 국역 退溪集에서 인용한 것임>

10. 高峯 奇大升의 「退溪先生 墓碣銘」

□ 선생은 스스로 銘을 지으시고 遺命으로서 조그마한 돌에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고 쓰라 하셨다. 그리고 선생이 쓰신 명문은 이러하다.

‘나면서부터 어리석기 짝이 없었고, 성장하여서는 병통도 많았구나. 중년엔 어찌하여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늦게서야 어찌 벼슬을 받았던가?’

학문의 길은 갈수록 더욱 더 멀고, 벼슬은 싫다 하여도 더욱 더 주어지는구나. 나아가는 길이 험해도 물러나 수양하기는 어렵기도 하구나.

임금의 은혜 망극하고 성현의 말씀 두렵구나. 오직 높고 높은 산이 있고 깊고 깊은 물이 있어 처음 뜻을 좇아 자연에 물러오니 모든 빗방울을 떨쳐 버린 듯하구나. 나의 마음 나대로 가졌으니 나의 생각 누가 알아 주리? 내 스스로 옛사람 생각하니 진실로 내 마음 부합되네. 현실도 알지 못하거니 오는 세상 어찌 알리. 근심 속에도 즐거움 있고 즐거움 속에도 근심 있네. 자연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노니 이 세상에서 다스름 무엇을 구하리요.’

□ 隆慶 4년(선조 3년) 봄에 퇴계선생 연세 칠십이라 두 번째 箋을 올리고 致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또 다시 치사할 것을 원하였으나 역시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이 해 12월 8일 辛丑에 선생이 돌아가심에 선조대왕께서 부음을 듣고 슬퍼하며 영의정을 贈職하고 영의정 예로써 장례를 치를 것을 명하였으며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 서거 소식을 듣고 슬퍼 탄식 하지 않는 이가 없어 서로 더불어 위문하다가 그 이듬해 3월 壬午일에 집 동쪽 寒芝山 남쪽등에 장례를 지냈다.

□ 선생의 姓은 李氏요 諱는 滉, 자는 景浩이다. 일찍이 退溪에 터를 잡아 살았으며, 이로 인하여 스스로 호를 퇴계라 하고 그 후에 陶山書堂을 짓고 또 호를 陶翁이라고도 하였다.

□ 그 先祖는 진보현인데, 6世祖인 碩은 縣吏로 일어나서 司馬試에 합격하고 증직이 密直使였다. 그 자제는 子脩인데 벼슬이 判典儀寺事로서 흥건적을 토벌하는데 공로가 있어 松安君 봉군을 받았으며 安東 周村에 와서 살았다. 고조의 諱는 云候이며 軍器寺副正이고 증직이 司僕寺正이며 妣는 淑人 權氏이다. 증조의 휘는 禎인데, 善山都護府使이며 증직이 戶曹參判이고, 妣는 貞夫人 김씨이다. 조부의 휘는 繼陽인데 成均進士로서 증직 吏曹判書이고 禮安 溫溪에 와서 우거하였으며, 妣는 정부인 김씨이다. 考의 휘는 埴이며 성균진사로서 여러번 증직을 받아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에 이르렀다. 妣는 義城 김씨와 春川 박씨인데 모두 貞敬夫人의 증직을 받았다.

□ 선생은 태어나신 후 한 돌이 못되어 부친이 돌아가심으로 숙부인 松齋公에게 수학하였고, 성장하여서는 뜻을 가다듬어 글읽기에 힘을 써서 더욱 각고면려하였으며 嘉靖 戊子(중종 23년)에 진사가 되었고, 甲午(중종 2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 副正字가 되었다가 다시 博士에 승진, 성균관 典籍, 戶曹佐郎으로 옮겼다. 丁酉(중종 32년) 겨울에 內艱喪을 당하여 3년상을 마친 후에 다시 弘文館 修撰, 司諫院 正言, 司憲府 持平, 刑曹正郎, 홍문관 부교리, 侍講院 文學, 議政府 檢詳·舍人, 司憲府 掌書, 성균관 司藝 겸 시장원 弼善, 사간원 司諫, 성균관 司成을 연달아 배수하다가 휴가를 얻어 산소에 성묘하셨다. 다음해 甲辰(중종 39년) 봄에 홍문관 敎理로 부름을 받고 다시 左弼善을 제수하고 홍문관 應敎를 거쳐 典翰에 이르렀다. 그후 병환으로 사면하였다가 司饗院正이 되었고 또다시 典翰을 배수하셨다. 그 무렵 李芑가 선생의 벼슬을 삭탈할 것을 啓請했다가 얼마 아니하여 삭탈하지 말라는 계청을 하였다고 하며, 그 후 司僕寺正을 제수받고 丙午(명종 원년) 봄에 휴가를 얻어 外舅의 장례를 치루고 병환으로 체임하였다. 丁未(명종 2년) 가을에 응교로 불렸으나 병으로 사면하고 戊申(명종 3년)에 단양군수로 나갔다가 풍기군수로 전임된 후 己酉(명종 4년) 겨울에 병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귀향한 까닭으로 두 계급의 강등 처분을 당하였다. 壬子(명종 7년) 여름에 교리로 소환되어 사헌부 執義·副應敎에 제수되고 성균관 大司成에 승진되었으나 병으로 사임하였으며, 다시 대사성, 刑曹·兵曹參議가 주어짐에 병으로 사면하였으나 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 乙卯(명종 10년) 봄에 첨지중추에 拜하고 홍문관 부제학에 연거푸 피임됨에 따라 모두 병으로 사임하였다. 戊午(명종 13년) 가을에 상소하여 벼슬을 면하려 하였으나 임금의 批答으로 허락되지 아니하므로 入都 謝恩하여 대사성을 배수하고 곧 工曹參判으로 승진시키기에 여러번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 이듬해 봄에 휴가를 얻어 귀향하게 되어 세 번 狀啓를 올려 면직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 乙丑(명종 20년) 여름에 장계로 解官하여 줄 것을 간절히 요망하였으나 그해 겨울 임금의 특명에 의하여 또 다시 同知中樞를 제수하기에 이듬해 丙寅 정월에 질병을 무릅쓰고 상경하는 도중에 또 관직에서 풀어줄 것을 원(乞骸)하는 장계를 올렸다. 그럼에도 중도에 工曹判書 겸 大提學을 배수하므로 한사코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와 待罪하고 있던 차에 知中樞府事에 체임되었다.

□ 丁卯(명종 22년) 봄에 나라에서 조서를 지닌 사신을 보내어 召命하였기에 6월에 入京하니 명종이 승하하시고 선조대왕이 왕위에 올라 예조판서를 제수하므로 사면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다가 8월어야 병으로 사면하고 곧 귀향하였는데, 10월에 소명을 내려 知中樞를 제수하고 교서를 내려 부임을 재촉하였으나 疏를 올려 극력 사양하였다.

□ 戊辰(선조 원년) 정월에 의정부 우찬성을 제수함에 역시 疏를 올려 극력으로 배수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또 다시 교서를 내려 상경할 것을 재촉하므로 곧 장계를 올려 간곡히 사양하였음에도 다시 判中樞府事를 제수하므로 7월에 궁궐에 들어가서 六條疏와 聖學十圖를 지어 올렸다.

□ 그때 대제학과 이조판서, 우찬성이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배수하지 않았다. 乙巳(선조 2년) 3월 上劑乞歸하기 위해 네 번이나 劄(약식 상소)을 올리게 되자 임금도 더 이상 만류하여 붙들지 못할 것을 깨닫고 위로하면서 역마를 차출하여 귀향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귀향한 선생은 집에 이르러 장계를 올려 謝恩하고 모든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乞願하였다.

□ 처음으로 선생이 寢疾에 들었을 때 아들 篤에게 훈계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조정의 骸曹(重臣의 장례를 주관하는 관청)에서 반드시 예로서 장례를 치르라고 정할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遺命이라고 일컫고 疏를 올려 이를 부디 고사하고, 또 비석을 쓰지 말며, 다만 조그마한 돌에다가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고 題하여 새기고 世系와 行實의 대략을 후면에 기록하되 가례를 표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은 만약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면 서로 잘 아는 奇高峯 같은 사람도 반드시 실제에 없는 장황한 말을 써서 공연히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므로 평소에 내 스스로 지어놓으려던 銘文이 인순하여 마치지 못한 채 亂稿中에 감추어 둔 것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찾아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니라.”하셨다.

□ 자제 篤 또한 이러한 유명에 따라 두 번이나 상소하여 禮葬을 사양하였으나 下命을 얻지 못하여 더 이상 사양할 수가 없어서 墓道の 表右만 유명대로 그 명문을 새겼다.

□ 오히려, 선생의 盛德大業이 우리 동방에 우뚝 뛰어났음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지라, 후세의 학자들이 선생의 논저를 본다면, 반드시 마음 속으로 感發하여 스스로 아는 바 있을 것이며 碑銘중에 서술한 것으로서 더욱 그 오묘한 뜻을 상상할 수 있으리라.

나처럼 어리석은 자가 선생의 장려하심을 입고 성취한 것이 친지 부모의 은혜와 같았으나 이젠 산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꺾어진 듯 어디 가서 의지할 바가 없네.

고요히 遺戒를 생각하건대 감히 어기지 못한 일이오나, 墓前에 새겨 놓아 후세에 알리는 일에 대해서 또한 그 자취를 사뭇 숨겨 버릴 수 없으므로 여기 그 대략을 기록하고 辭로서 말하노니,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단정하고 차례가 있으셨으며, 성장하여서는 더욱 함양함이 깊었고, 중년 이후부터는 명예와 지위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학문 강구에만 전력을 다하여 미묘하고도 심오한 이치에까지 환하게 밝으셨으며,

쌓고 채우고 또 發越함은 사람들이 감히 능히 헤아려 측량하지 못하였다.

바야흐로 謙虛卑遜하시어 아무것도 가진 바 없는 듯하였으나 날로 새롭게 향상발전하기를 말지 아니하여 나가서 처하고 취함에 있어서는 시의를 보고 의리를 헤아려 본래의 내 마음의 편함을 구하는데 힘을 써서 마침내 굽고 어긋남이 없었다.

그 논술 저서에도 끌고루 반복하여 밝고 의젓하여 한결같이 바르고 정당하여 孔孟程朱子의 말씀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고 신에게 물어 봐도 의심이 없으니, 아! 지극하시도다.

□ 선생은 두 번 장가를 가셨는데, 先娶는 김해 許氏로 진사 瓚의 따님으로서 2男을 낳았었고, 後娶는 안동 權氏 奉事 碩의 따님인데 모두 정경부인이시다. 자제 篤은 奉化縣監이고 案는 沒世하였다.

□ 손자는 셋인데 安道는 辛酉(명종 16년)에 생원이 되었고, 다음은 純道, 다음은 詠道이다. 여는 士人 朴攬에게 출가하였고, 側室子 한사람은 寂이다.